
IDI 연구보고서 2017-03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Activation of the Career
Experience Program of Public Organization in Incheon

배은주 · 허효선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

배은주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연구원

허효선 도시경영연구실 초빙연구원

본 연구결과는 연구진의 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목적

- 자신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진로교육의 한 영역인 진로체험은 자유학기제의 실시와 더불어 진로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함
- 다양한 진로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사회의 공공기관부터 진로체험처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인천광역시 공공기관들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진로체험의 기회 제공에 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협력 하에 지역사회의 진로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연구 범위와 방법

- 연구 범위는 인천광역시 소재 공공기관이며, 구체적으로는 인천광역시청과 군·구청,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일반 행정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교육행정기관, 인천광역시공기업, 인천광역시와 군·구청 그리고 교육청의 출자출연기관과 사업소, 인천 소재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공기업 등임.
 - 본 연구에서의 공공기관은 공적 자금으로 공공을 위해 운영되는 일반적인 광의의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협의의 ‘공공기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둠
- 문헌연구를 통하여 진로교육 관련 국가 정책과 진로교육법,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의 취지 및 내용을 검토하고, 2016년 인천시 공공기관의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설문조사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3. 진로교육과 관련 정책과 운영 체계

- 국가 차원에서 진로교육종합계획을 마련하면서 진로교육 운영체계를 구축하였고, 이와 함께 진로체험 지원체계도 마련하였는데,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과 더불어 2016년 교육부의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여 공공기관들의 진로체험 제공을 의무화함
- 따라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은 더 긴밀해져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하여 지역마다 지원체계는 아직 다 마련되지 않았고, 그 규모와 역할 등에도 차이가 있음
- 인천광역시의 경우 교육청에서 진로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기초지자체 단위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지정 혹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광역급 인천진로교육센터를 2017년에 개소하여 운영 중임
 -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의 경우 그 규모와 운영 형태, 역할 등에 편차가 커서 지원체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임
- 결국 진로체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함

4.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

- 인천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623개소 중 472개소의 설문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172개소(36.4%)로, 총 30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중앙정부 기관이 지방정부 기관보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비율이 더 높고, 교육·문화 관련 기관이 복지·상담 관련 기관보다 운영 비율이 더 높음

- 진로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응답기관의 절반 이상이 진로교육법의 제정이나 관련 교육부의 고시, 진로체험 지원 사이트인 ‘꿈길’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의무적으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거나 진로체험처로서 정보와 운영실적을 등록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약 30% 정도 됨
 - 그렇지만,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효과와 필요성, 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공감하고 있음
- 2016년도에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관 172개소 중에서 진로체험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기관은 약 77%, 전담 인력이 있는 기관이 약 68%, ‘꿈길’에 등록한 기관도 약 66% 정도인 반면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기관은 약 44%로 적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기관의 성격에 맞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연계하는 방법은 주로 학교에서 직접 공공기관에 연락하거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직접 연락의 방법을 활용하고, 다음이 ‘꿈길’ 사이트, 세 번째가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안내나 공문을 활용함
- 공공기관들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유로는 미래인재 육성이 가장 많고, 다음이 사회참여 및 봉사, 기관 이미지 제고 순으로 나타남
-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예산 확대, 기관이나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외부 연계기관의 도움, 학생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꼽았고,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의 운영 지원, 기관이나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음
- 2016년도에 제공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이외에 신규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관들이 39%(67개소)이고, 이들 중 2017년부터 실행가능한 신규 프로그램이 있는 기관이 53개소였고, 대개 1~2개의 신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함

- 2016년도에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들은 300개소(63.6%)였는데, 이들 중에서 향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관이 약 40%였고, 규모가 작은 주민자치센터 같은 지방기관들은 여전히 제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관들이 여태껏 제공하지 못한 이유로는 전담 인력의 부족, 지원 예산의 부족, 공간 및 인프라 부족을 들었고,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함
 - 향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관들이 제공하고 싶은 프로그램의 유형은 현장직업체험형, 직업실무체험형, 현장견학형 순으로 나타났고, 제공하고 싶은 대상으로는 고등학생과 중학생을 가장 선호함
 - 향후에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사가 없는 기관들이 그 이유로 든 것은 1순위로 전담 인력의 부족, 2순위로 지원 예산의 부족, 3순위로 공간 및 인프라 부족이라고 응답함
- 이를 종합해 보면, 진로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더불어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예산, 인력, 공간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진로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인력, 인센티브, 사업장의 성격에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2016년도에 운영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292개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교육·문화 관련 기관이 복지·상담 관련 기관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함
 - 실제 운영한 프로그램의 유형은 강연·대화형이 가장 많고, 다음이 현장직업체험형, 현장견학형 순이었고, 체험형역은 종합적인 진로교육 분야를 제외하면 문화예술, 공무원, 인문사회법률 분야 순으로 많음
 - 실제 프로그램 제공 대상은 중학생이 가장 많고 다음이 고등학생이었고, 대부분 단체로 신청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회당 평균 이용인원은 대개 50명 미만, 연간 운영횟수는 대개 30회 미만, 연간 이용인원은 대개 300

명 미만, 프로그램의 소요시간은 대개 4시간 미만이었고, 그 이상의 시간을 운영하는 곳은 주로 캠프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였음

- 프로그램은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고, 진로교육법이 제정된 2015년을 전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한 기관들이 많았고,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2016년도에 운영한 프로그램을 2017년도에도 지속하고자 하였고, 일부 기관들만 신규 프로그램으로 변경함

5.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활성화 방안

- 연구 결과, 인천광역시에서는 진로체험 추진체계의 정비와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고,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서 진로체험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진로체험 정책 추진에 대한 자치단체장과 공공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진로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로체험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진로체험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진로체험 운영 지원, 진로체험 질 관리 등의 정책 지원과 이에 따른 세부 방안을 다음 <표>와 같이 제안함
- 향후 지역사회에서 진로체험의 효과를 제고하고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제언함
 - 첫째, 진로체험 기회가 부족한 대상에 대하여 차등적인 접근이 필요함. 진로체험의 경우 인천 관내에서도 군과 자치구 간 공공기관의 수, 접근성 등에 차이가 있어 진로체험의 양과 질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둘째, 교육부에 꿈길 사이트의 개선을 계속 요구해서 꿈길 사이트의 활용도를 높여야 함
 -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기관의 진로체험 운영 실태 조사를 후속 연구로 수행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참여 실태'와 같은 수요자 관점의 연구도 후속 연구로 수행하여 진로체험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도 필요함

<표>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활성화 방안과 추진 및 협력처

구분	방안	세부 방안	추진처	협력처
정책 홍보 강화	공공기관에 대한 진로체험 정책 안내	안내 공문 발송	시청, 교육청	
		홍보 팸플릿 제작, 발송		
	인천 진로체험처 종합정보 안내		인천진로 교육센터	시청, 교육(지원)청, 진로체험 지원센터, 공공기관
	우수 프로그램 홍보 및 사례 공유		시청, 교육청	인천진로 교육센터
법·제도 적 지원	진로체험 지원체계 정비 및 역할 강화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정비 및 역할 강화	교육청	교육지원청, 기초지자체, 시청
		광역 진로교육센터 역할 강화 및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와 역할분담	교육청	인천진로 교육센터
		진로교육협의회 활성화	교육청	시청
	교육지원청 단위별 진로체험 협의체 구성 및 홍보		교육 지원청	기초지자체, 공공기관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기초 지자체	시청
진로 체험 운영 지원	다양한 체험처 발굴 및 확대		시청	교육청, 인천진로 교육센터
	공공기관의 업무 지침 명시		시청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우수 진로체험 기관 홍보	시청	교육청
		운영실적 기관 평가 반영	시청	
일정 비율 예산 배정 독려		시청	공공기관	
진로 체험 질 관리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컨설팅		인천진로 교육센터	공공기관
	프로그램의 질 모니터링과 피드백		인천진로 교육센터	교육청, 시청, 공공기관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형 다양화		공공기관	인천진로 교육센터, 시청

- 목 차 -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6
3. 연구 진행 흐름도	7
제2장 진로체험에 대한 이론적 배경	11
제1절 진로체험 개념과 유형	11
1. 진로체험의 개념과 의미	11
2. 진로체험의 유형과 효과	13
제2절 진로체험 관련 정책과 운영 체계	15
1. 진로체험 관련 정책	15
2. 진로체험 관련 법령	21
3. 진로체험 운영 체계	28
제3절 선행 연구 및 주요 사례 검토	37
1. 선행 연구 검토	37
2. 주요 사례 검토	42
제4절 소결	46
제3장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	51
제1절 조사 개요	51
1. 조사 대상	51
2. 조사 방법	56

3. 조사 내용	57
제2절 조사 결과	59
1. 응답기관 기본 정보 분석	59
2. 진로체험처(공공기관)에 대한 일반 설문 결과	61
3. 2016년 운영 진로체험 프로그램 설문 결과	84
제3절 소결	99
제4장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활성화 방안	105
제1절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05
1.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확대	105
2. 진로체험 추진체계의 정비와 역할 재정립	105
3. 진로체험 정책 추진에 대한 자치단체장과 공공기관장의 의지 중요 ..	106
제2절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활성화 방안	107
1. 진로체험 정책 홍보 강화	107
2. 진로체험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109
3. 진로체험 운영 지원	111
4. 진로체험 질 관리	113
제5장 결 론	119
제1절 연구결과 종합	119
1. 지역사회 진로체험 제공의 중요성과 필요성	119
2.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정책 인식 제고와 제공 확대를 위한 노력 ..	121
제2절 제언	125

참고문헌 129

부록 135

- 표 목 차 -

<표 2-1> 진로체험 유형별 활동내용	13
<표 2-2>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 계획(2007~2011)	15
<표 2-3> 진로교육 종합계획(2009~2013)	17
<표 2-4>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19
<표 2-5> 학교 진로교육 운영 현황(2016)	21
<표 2-6> 진로교육법 주요 내용	22
<표 2-7>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	25
<표 2-8>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 주요 내용	27
<표 2-9> 진로체험 관련 기관의 주요 역할	29
<표 2-10> 시·도별 진로체험지원센터 현황(2016. 12월 기준)	31
<표 2-11>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절차	32
<표 2-12> 2017년 인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현황(2017. 10월 기준)	35
<표 2-13> 주요 선행연구 개관	40
<표 2-14> 서울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역할 및 필수 프로그램	43
<표 3-1> 진로체험 제공기관의 범위	51
<표 3-2> 진로체험 제공기관 현황	53
<표 3-3> 설문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54
<표 3-4> 통계분석을 위한 진로체험 제공기관의 분류	55
<표 3-5>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의 성격별 분류	56
<표 3-6> 군·구별 설문대상 및 응답 공공기관 현황	57
<표 3-7> 설문 문항 내용	58
<표 3-8> 응답기관 기본 정보 사항	60
<표 3-9> 진로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62

<표 3-10>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성격별 진로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62
<표 3-11>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63
<표 3-12> 진로체험의 영향력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64
<표 3-13> 진로체험 활동이 필요한 이유	64
<표 3-14>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부 변인별 비교	66
<표 3-15>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	67
<표 3-16> 기관별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수에 대한 변인별 비교	69
<표 3-17>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유 변인별 비교	72
<표 3-18>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개선 항목의 필요 정도(5점 척도)	73
<표 3-19> 실무자의 공감대 및 전문성에 대한 개선 필요 정도 변인별 비교(5점 척도)	73
<표 3-20> 학생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개선 필요 정도 변인별 비교(5점 척도)	74
<표 3-21> 운영 기관 인센티브에 대한 개선 필요 정도 변인별 비교(5점 척도)	74
<표 3-22> 미운영기관의 향후 진로체험 제공의사 유무 변인별 비교	78
<표 3-23> 향후 제공할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대상 변인별 비교(중복응답)	82
<표 3-24> 2016년도 운영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수	84
<표 3-25>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형 변인별 비교(중복응답)	86
<표 3-26> 중앙/지방 정부 기관별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체험영역	87
<표 3-27>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방법 변인별 비교	89
<표 3-28>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회당 이용인원 변인별 비교	91
<표 3-29>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연간 운영횟수 변인별 비교	92
<표 3-30>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소요시간 변인별 비교	95
<표 3-31>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가비 변인별 비교	96
<표 3-32>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최초 제공시기 변인별 비교	97
<표 3-33>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2017년 운영여부 변인별 비교	98

<표 5-1> 진로체험 활성화 방안에 따른 관련 기관의 주요 역할	124
<표 5-2> 소재지별 공공기관 현황	125

- 그림 목 차 -

<그림 1-1> 연구 진행 흐름도	8
<그림 2-1> 국가 진로체험 운영 체계	28
<그림 2-2> 진로체험 운영체계	30
<그림 2-3>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마크	33
<그림 3-1>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	65
<그림 3-2>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예산 현황	68
<그림 3-3>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인력 현황	68
<그림 3-4> 기관별 2016년도 운영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수	69
<그림 3-5> 학교와의 연계 방법(1순위, 2순위)	70
<그림 3-6>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유	71
<그림 3-7>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요구(1순위, 2순위)	75
<그림 3-8> 진로체험 운영기관의 향후 새로운 진로체험 운영 계획	76
<그림 3-9> 2017년도 제공 예정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수	77
<그림 3-10> 미운영기관의 향후 진로체험 제공의사 유무	78
<그림 3-11> 지금까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이유(1,2,3순위)	79
<그림 3-12>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요구(1순위, 2순위)	80
<그림 3-13> 향후 제공할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유형(중복응답)	81
<그림 3-14> 향후 제공할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대상(중복응답)	81
<그림 3-15>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의사가 없는 이유(1,2,3순위)	83
<그림 3-16>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형(중복응답)	85
<그림 3-17>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체험영역	87

<그림 3-18>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대상(중복응답)	88
<그림 3-19>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방법	89
<그림 3-20>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회당 이용인원	90
<그림 3-21>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연간 운영횟수	92
<그림 3-22>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연간 이용인원	93
<그림 3-23>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소요시간	94
<그림 3-24>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가비	95
<그림 3-25>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최초 제공시기	97
<그림 3-26>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2017년 운영여부	98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Activation of the Career Experience
Program of Public Organization in Incheon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은 교육과 직업 세계 간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하는 교육정책 중의 하나로 학교 현장에서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특히 지식 기반사회와 디지털경제시대의 도래에 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 차원에서 OECD 국가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진로교육을 중요시 하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처지이다(맹영임·임경희, 2008: 1). 이러한 추세를 뒤따라가듯 우리나라에서도 ‘진로교육법’이 제정되었다.

2015년의 조사결과를 발표한 <2016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자의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중 학업 및 진로 문제가 20.4%로 대인관계(22.4%)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학업 및 진로 문제에서도 진로정보탐색이 43.1%로 가장 많았다(여성가족부, 2016: 179). 인천광역시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들의 총 상담이용건수에서도 학업 및 진로문제를 호소하는 상담건수가 약 12%로 나타나고 있어,¹⁾ 10%가 넘는 청소년 상당수가 학업 및 진로문제의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살펴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로교육법이 뒤늦게라도 제정되어 알 수 있다. 청소년 시기는 발달과업의 특성상 자신의 적성, 흥미, 특기, 재능 등을 진로 교육을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2015년 제정된 ‘진로교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진로체험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로교육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1) 인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내용별 실적’ 내부자료.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16년 3월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이 교육부 고시로 제정되었고,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기관은 진로체험지원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에 의거하여 관련 행정기관을 평가하는 주관 부서에서는 진로체험 제공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게 되었다.

진로교육법과 진로체험 관련 고시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이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잘 이행함으로써 진로체험 운영이 활성화되어 진로교육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분위기가 민간기관으로까지 확산되도록 공공기관들이 선도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6년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진로체험 기회의 확대가 교육부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다(김태선, 2016: 18).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 정책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이 중요시 되고,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체험처 발굴, 직업인의 연계 및 참여 확대 등에 따라 학교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또한 요구되고 있다(장현진, 2015: 30).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많은 공공기관들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진로체험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2016년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2013, 2014년보다 2015, 2016년에 진로교육 중 진로체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여전히 진로체험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진로체험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은 초등학생 68.9%, 중학생 79.9%, 고등학생 73.6%인데 비해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생 비율은 초등학생 84.4%, 중학생 85.5%, 고등학생 86.5%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다른 진로교육 유형보다도 진로체험에 대한 희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진로체험 활동에 대한 요구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진로체험 제공이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인천광역시 또한 예외가 아닐 것으로 추론되며, 다양한 진로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사회의 공공기관부터 진로체험처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인천광역시 공공기관들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진로체험의 기회 제공에 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협력 하에 지역사회의 진로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1) 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소재 공공기관이 연구의 대상이며, 구체적으로는 인천광역시청과 군·구청,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일반 행정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교육행정기관, 인천광역시공기업, 인천광역시와 군·구청 그리고 교육청의 출자출연기관과 사업소, 인천 소재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공기업 등을 연구 범위로 한다. 본 연구에서의 공공기관은 공적 자금으로 공공을 위해 운영되는 일반적인 광의의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협의의 ‘공공기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²⁾

2) 시간적 범위

2016년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소재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한다.

2) 본 연구의 연구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해서는 p.47 참고

3) 내용상 범위

진로교육 관련 정책 검토를 비롯하여 진로교육법과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의 취지 및 내용을 검토하고, 인천시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설문조사하여 분석하고,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1) 문헌조사

진로교육 관련 정부의 정책이 진행된 과정과 진로교육법 및 진로체험 제공 관련 고시 등에 관한 다양한 문헌과 법령을 검토하여 진로교육 관련 전반적인 정책 지형을 파악한다. 또한, 진로체험 관련 선행연구 논문들과 국책연구원 및 시·도연구원의 보고서도 검토하여 진로체험 관련 연구의 지형을 파악한다.

2) 설문조사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에서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의 기회를 얼마나 부여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과 관련하여 진로체험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실태 조사를 위해 각 기관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결과는 통계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실태 분석을 실시한다. 설문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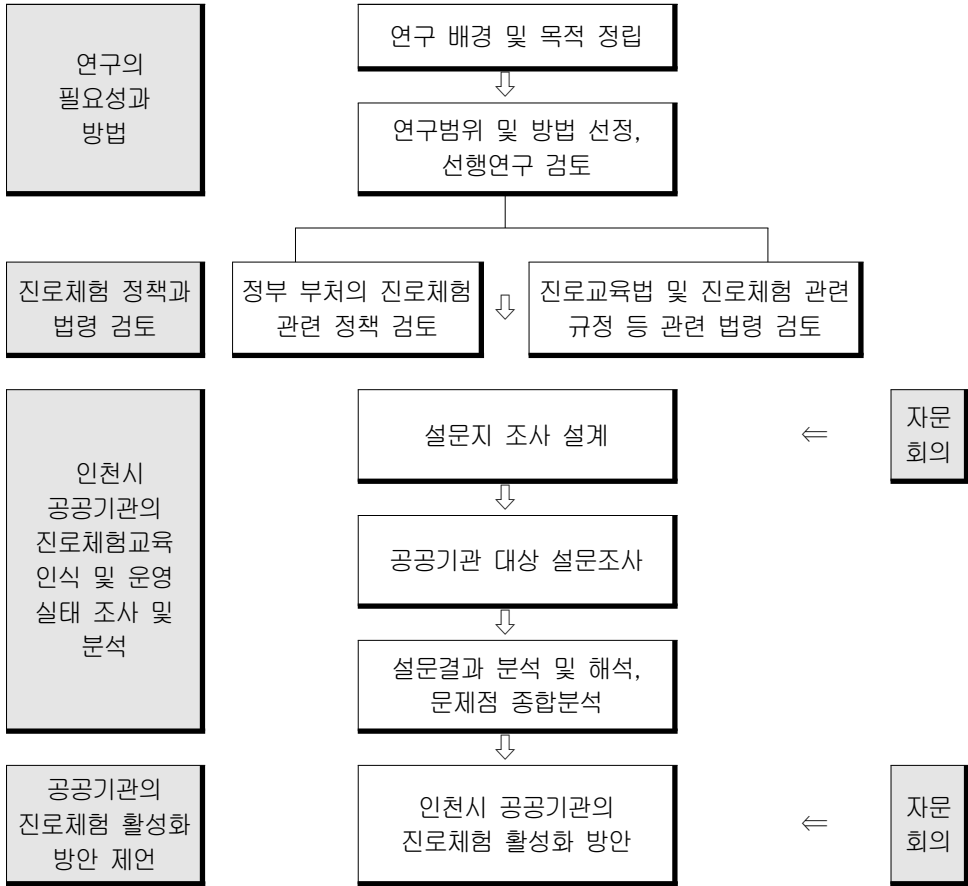
설문조사 이외에, 1차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이유와 지원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부 기관에 한하여 면담조사를 보완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 기관 2개소와 2016년도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2017년도 운영을 중단한 3개소를 대상으로 그 이유와 필요한 지원에 대하여 보완적으로 면담조사를 하였다.

3) 전문가 자문회의

지역사회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의견을 구한다. 첫째, 1차 자문회의를 통해 본 연구의 진행과정과 방법, 연구문제 설정과 관련하여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공공기관의 설문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설문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한다. 둘째, 2차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인천시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하여 자문의견을 수렴한다.

3. 연구 진행 흐름도

본 연구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며,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림 1-1>과 같다. 먼저, 각종 문헌검토를 통해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과 법령을 검토한다. 이후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설문지 조사를 설계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석하여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실태와 문제점을 종합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한 후, 인천시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1-1> 연구 진행 흐름도

제2장

진로체험에 대한 이론적 배경

- 제1절 진로체험 개념과 유형
- 제2절 진로체험 관련 정책과 운영 체계
- 제3절 선행 연구 및 주요 사례 검토
- 제4절 소결

제2장 진로체험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진로체험 개념과 유형

1. 진로체험의 개념과 의미

진로체험은 직업체험을 포함하는 진로교육의 한 종류로서 체험학습 형태로 이루어지는 진로지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김기헌 외, 2014). 교육 분야에서 ‘진로교육’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Marland(1974)에 의해서인데, 여러 문헌(Hoyt, 1974; Baily & Stadt, 1973; 임지연 외, 2006)에서 정의된 진로교육의 개념을 종합해 보면, ‘진로교육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흥미 등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직업(일)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 자신과 직업(일) 세계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자신에게 적절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에 제정된 진로교육법에서는 진로교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진로체험은 이러한 진로교육의 한 종류이다. 진로교육법에서의 ‘진로체험’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직업체험은 진로체험의 일부로 학교 밖 직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학습이다. 이렇게 보면, 진로교육이 가장 광범위한 교육 활동이고, 진로체험은 진로교육의 일부이며, 직업체험은 진로체험의 일부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진로체험을 직업체험과 동일시하며 사용하고 있고, 특히 자유학기제 실시 이후 학교 밖 직업 현장에서의 체험학습을 중시하고 있어 진로체

험은 곧 직업체험을 가리키는 것으로 통용된다. 하지만, 직업 현장에서도 진로특강, 진로캠프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로체험은 체험의 여러 형식을 포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이라는 직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체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학교 밖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직업체험과 진로특강, 진로캠프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사용한다.

최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진로교육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로체험이 중시되고 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이 상급학교로의 진학지도에 치중한 것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직업탐색의 실질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직업 현장에서의 체험을 진로교육의 중요한 유형으로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진로체험의 궁극적 목표는 청소년에게 직업의 사회적 유용성을 재발견하게 하고 많은 수의 직업 중 자신의 직업을 스스로 찾아보게끔 하는 동기유발 및 진로설계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임지연 외, 2006: 38). 이처럼 체험을 중시하는 진로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전통적인 진로교육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하였으며, 진로교육에서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과도 관련된다(Zunker, 2002).

일찍이 교육활동에서는 Piaget, Dewey, Lewin, Kolb 등 여러 학자에 의해 맥락의 중요성과 체험이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교육에서 맥락과 체험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반성적 사고를 수행할 수 있을 때 능동적인 학습이 유발되고 학습내용이 개인에게 내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진로교육에서도 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현실로부터 분리되어 탈맥락화되어 있는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여전히 실제 살아가야 할 사회와는 이질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직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체험은 실제 살아가야 할 사회와 유사한 맥락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한 직업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김기현·맹영임, 2011). 이러한 진로체험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으며, 더불어 개인의 진로와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책임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2. 진로체험의 유형과 효과

진로체험은 체험방식에 따라 간접적인 것과 직접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 내에서 관련 강사를 초빙하여 듣는 강연, 온라인이나 시청각 도구를 활용하는 방식, 직업체험시설의 견학 등 간접적인 체험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인턴십이나 현장견학, 현장탐방 및 직업인 인터뷰 등 직접적인 체험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교 밖의 직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체험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학생들이 직접 보고 듣고 스스로 생각해 보며 체험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로체험은 최근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더욱 강조되는 영역으로 교내·외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그 활동내용에 따라 6가지 유형(현장직업체험, 직업실무체험, 현장견학, 학과체험, 진로캠프, 강연 및 대화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진로체험 유형별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1> 진로체험 유형별 활동내용

유형	활동내용
현장직업 체험형	- 학생들이 관공서, 회사, 병원, 가게, 시장과 같은 현장 직업 일터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 ※ 멘토 1인당 10명 내외 학생 지도 권장
직업실무 체험형	-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모의 일터에서 현장직업인과 인터뷰 및 관련 업무를 직업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현장직업인 멘토 필요) ※ 멘토 1인당 15명 내외 학생 지도 권장
현장견학형	- 일터(작업장), 직업관련 홍보관,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생산과정, 산업 분야의 흐름과 전망 등을 개괄적으로 견학하는 활동
학과체험형	- 특성화고, 대학교(원)을 방문하여 실습, 견학, 강의 등을 통해 특정 학과와 관련된 직업 분야의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하는 활동
진로캠프형	- 특정 장소에서 진로심리검사·직업체험·상담·멘토링·특강 등 종합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활동(1일 6시간 이상 운영)
강연형· 대화형	- 기업 CEO,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직업인들의 강연, 진로특강을 통해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활동(대화형은 40명 내외 학생 기준)

자료: 꿈길 사이트,

<http://www.ggoomgil.go.kr/front/info/info03.do?rootMenuId=01&menuId=0103>

자유학기제 시행 이후 진로체험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효과적인 진로체험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었다.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사회적 경험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회적 경험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기업, 시설, 기관, 단체 등이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한다면, 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꿈을 보다 넓게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뿐 아니라 공공기관 등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로체험은, 김기현·맹영임(2011: 13)에 의하면, 청소년들에게 크게 다음 네 가지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시된다. 첫째, 인간관계형성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며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통해 협력하여 공동으로 일을 추진하는 타인이해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둘째, 정보활용능력으로, 학습과 일, 역할 및 다양성의 이해, 다양한 정보를 통해 자신의 진로와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수집 및 탐색능력과 직업이해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셋째, 미래설계능력으로, 미래의 인생과 생활에 대해 생각하며 사회 현실을 고려하여 진취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역할파악 및 인식능력과 계획실행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넷째, 의사결정능력으로, 자신의 의사와 책임에 기초해 보다 나은 선택과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의 과제와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선택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역량이 진로체험을 통해 통합적으로 균형적으로 습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로체험은 가장 중요시되는 진로교육 분야이다.

다른 한편, 많은 연구들(Hughes·Bailey·Mechur, 2001; Stone & Aliaga, 2005; 임연, 2005; 박가열, 2008; 정철영 외, 2012)은 진로체험 활동이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 향상이나 학업성취 향상, 진로성숙도 및 진로결정효능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진로체험은 진로교육의 한 영역이지만, 다른 영역의 활동보다 청소년들의 참여와 체험으로 이루어지므로 진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자기이해, 직업세계 이해, 정보와 진로개발 역량 획득 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는 다양한 진로체험을 위한 체험터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진로체험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제2절 진로체험 관련 정책과 운영 체계

1. 진로체험 관련 정책

초창기 국가 진로교육에서는 진로체험이 강조되지 않았다. 처음 진로교육을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단계였기에 진로체험보다는 진로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두었다. 그래서 국가 진로교육 정책은 1999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진로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커리어넷(www.career.go.kr)의 운영으로 시작되었다. 2004년 진로교육을 실천하는 협의체로 ‘전국진로지도협의회’를 구성하였고, 2006년 ‘국가진로교육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9개 정부 부처가 진로교육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정철영 외, 2015: 158). 그 결과 2006년에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청소년과 성인의 진로개발을 포함하는 3개 정책 영역에서 14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5년 간 추진하는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은 청소년 진로개발 역량 제고와 진로개발 지원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계획된 것으로, 당시 진로체험은 세부 추진 과제 수준에서 제시되었을 뿐이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 계획(2007~2011)

정책영역	정책과제	세부 추진 과제
청소년 진로개발 역량제고	초중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활성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진로교육 강화 체험을 통한 진로교육 강화 개인별 진로교육 관리 시스템 구축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양성 및 연수 강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성에 부합하는 진로교육 강화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 업무 강화
	대학생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대학의 진로개발 지원 서비스 기능 강화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 지원 직업·직장체험 프로그램 내실화 대학생 진로개발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
	학교 밖에서의 진로개발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진로개발 활성화 어려운 청소년/위기 청소년들의 진로개발 지원
	여학생을 위한 양성평등 진로교육	여학생 진로의식 고취를 위한 학교 진로교육과정 개설 멘토링 및 리더십 개발 사업의 확대 양성평등 프로그램 및 정보 개발 사업 강화

학습과 고용이 통합된 성인의 진로개발 확대	직업을 가진 모든 이들의 경력개발 지원 확대	평생 직업능력개발과 연계된 재직자 경력개발 지원 시스템 강화 지속적인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취업 지원체계 강화
	실업자의 직업세계 진입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 내실화	실업자의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취업지원 체제 구축 고용·훈련 등의 통합 서비스 제공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
	제대 후 사회복귀 지원	제대군인 서비스의 관련 기관간 연계 강화 제대군인 특화 취업연계형 프로그램 개발 군 복무 중 경력개발 활성화
	여성 경력개발 지원 활성화	대상별 요구에 맞는 재취업 능력개발 및 고용연계 프로그램 운영 여성특화 고용 서비스 인프라 강화 여성 재직자 경력개발 지원 사업 실시
	취약계층 진로개발 지원 확대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복지-학습이 통합된 서비스 확대 장애인의 고용, 복지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안착 지원
	활동적 고령화 지원 확대	대상별 맞춤형 진로개발 서비스 인프라 구축 고령자 적합 직종 개발 은퇴 후 생애설계 서비스 제공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노인교육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및 노인의 일할 능력 개발
진로개발 지원 체제 구축	진로개발 지원 질 관리체계 구축	국가 수준의 진로개발 표준 개발 전문가의 역량 기준 수립 진로개발 지원 모니터링 체제 구축
	신뢰성 있는 정보의 생성 및 보급	고품질 직업정보 생성 및 보급 학교 및 학과 관련 고품질 정보개발 및 보급 진로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부처간 협의체(국가진로교육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구축 지역 파트너십 강화
	진로개발 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평생진로개발 지원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2006. 10. 19일자) 참고

이에 따라 초·중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시작하였고, 진로교육을 교과서에 반영하였으며 커리어넷과 청소년워크넷 등을 통해 온라인망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초·중등학생에게 진로탐색과 검사, 진로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진로개발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진로개발 지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격적으로 진로체험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진로교육 종합계획(2009~2013)’을 수립하면서부터이다. 학교 중심의 진로교육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 강화되면서 진로교육 관련 정부 부처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협력하여 2010년 2월 진로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서는 3대 정책 영역에서 10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선택과 체험 위주의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각종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확충되고 직업체험터인 ‘잡월드(Job World)’가 신축되는 등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이 강화되고, 진로체험을 중시하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이 시작되었다.

<표 2-3> 진로교육 종합계획(2009~2013)

정책영역	정책과제	세부 추진 과제
I. 체험 중심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1. 직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제공	직업체험프로그램 확충 잡월드 신축·운영 국립청소년직업체험관 시도청소년직업체험관
	2. ‘진로의 달’ 운영 및 확대	‘진로의 달’ 명칭 및 기간 변경 ‘진로의 달’ 전국 학교 보급
	3. 진로교육 우수사례 보급 및 학교 지원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확대 실시 「교과통합 진로교육」 자료개발 「교과통합 진로교육」 연구학교 운영 「교과통합 진로교육」 보급·확산 커리어존 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
	4. 진로교육 교과서 및 매뉴얼 개발 보급	‘진로와 직업’ 수업 시수 확보 진로교육 전문연수 인원 확대 학교급별 진로교육 매뉴얼 개발 및 보급 교과별 진로교육 매뉴얼 개발 보급

II.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실현	1. 취약위기 청소년 진로교육 강화	상설 두드림존 확대 자립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자립지원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 직업체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다문화·탈북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확대	다문화가정 및 탈북 청소년 진로전담관(길잡이교사) 운영 다문화가정 및 탈북 청소년 '진로도우미' 운영 다문화가정 및 탈북 청소년 학습-진로교육 센터 운영
	3.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교육·자립 지원체계 구축	학원비 및 자립지원 교육비 지원 해밀사업 및 학습클리닉 보급 운영 전국 대상 민·관 지원 기관 확대
III.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	1. 진로정보의 체계적인 제공·관리	온라인 적성검사 개편 및 활용 커리어넷 시스템 및 콘텐츠 개편 취약청소년을 위한 진로정보망 신설·운영 전국·지역 단위 진로박람회 개최
	2. 진로교육 관련 법령 및 조직 정비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진로교육지원법(가칭) 제정 추진단 설립 및 운영
	3.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연수체계 개편	현직교원의 특성 및 수준에 따른 진로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초·중등 교원양성기관에 진로교육 관련 교과 개설·운영 지원 청소년 시설 종사자 대상 진로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파견 프로그램 개발 및 양성·배치

자료: 교과부·노동부·복지부 공동(2010). 진로교육 종합계획(안) 참고

이에 의거하여 2010년 10월 진로진학상담교사 총원 및 활용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11년 3월에는 교육부에 진로교육정책과를 신설하여 중앙부처에 진로교육 전담 조직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진로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조하는 '2009 개정교육과정'을 실현하게 되었고, 진로교육 담당인력의 확충과 더불어 인력의 활용과 프로그램의 다양화에도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2013년에는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맞춤형 진로설계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는데, 연2회 이상 진로검사 및 상담을 필수로 이수하게 하였고, 진로체험을 강화하여

중·고등학생은 연 1회 이상 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모든 시·도교육청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자유학기제는 2015년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에 모든 중학교에 전면 도입하였고, 2015년에 「진로교육법」을 제정하고, 2016년에는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서는 '진로교육 종합계획'에 이어 진로체험 활성화를 주요 정책영역으로 설정하여 진로교육에서 진로체험이 보다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서는 '꿈과 끼를 살리는 진로교육'을 위해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을 신장하고, 내실 있는 맞춤형 진로교육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4개 정책 영역에서 8개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다. 세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2-4>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정책 영역	추진과제	세부과제
1.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	1. 진로교육이 강화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착	1-1-1. 진로 교육과정 운영 확대
		1-1-2.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1-1-3. 진로교육활동 운영 내실화
	2. 교원 및 자원인력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	1-2-1. 전담인력 확충
		1-2-2. 진로교육인력 전문성 제고
2. 진로교육 대상 확대	1.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 강화	2-1-1. 균등한 진로교육 기회 제공
		2-1-2. 대상자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강화
	2. 대학생 진로교육 지원	2-2-1. 진로 교육과정 확대
		2-2-2. 대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 확대
		2-2-3. 진로교육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2-2-4. 학생 원스톱 서비스 제공

3. 진로체험 활성화	1. 양질의 진로체험처 확보 및 내실화	3-1-1. 사회 전반에 대한 진로체험처 제공 분위기 확산
		3-1-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진로체험처 제공
		3-1-3. 진로체험기관 질 관리 강화
	2.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	3-2-1.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3-2-2. 내실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1.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	4-1-1.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관 구성·운영
		4-1-2.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2. 진로정보망 개편 및 학부모 진로교육 강화	4-2-1. 사용자 친화적으로 진로정보망 개편
		4-2-2. 학부모 진로교육 강화

자료: 교육부(2016).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참고

‘2016년 진로교육활성화 계획’(교육부)에 따르면 ‘진로체험 내실화 및 다양화’는 2016년 핵심추진 과제 중의 하나로서, 본 계획에는 향후 과제로 양질의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제공과 지역 간의 격차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진로체험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민간참여 및 대학참여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나아가 진로체험 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정부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인증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자유학기제의 전면 실시와 더불어 일반고 중심으로 시행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도 2017년도에 더 확대되어 초·중학교에까지 도입될 예정이다.³⁾ 진로교육에 집중하는 학년이나 학기를 교육청 단위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진로교육을 위한 여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7년도에는 단위학교의 진로체험 수요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어 교육부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종합적인 진로체험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별 선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을 확대하면서 센터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교육부, 2017).

3)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는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지필고사 없이 진로탐색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에 비해, 진로집중학기 및 학년제는 지필고사는 그대로 시행하면서 진로탐색에 집중하는 학기나 학년을 말한다.

진로체험은 학교의 진로교육에서 진로활동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서 ‘진로활동’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은 2011년부터 중·고교에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중심으로, 4) 중·고등학교에는 ‘진로와 직업’이란 선택교과를 통해 그리고 일반 교과 수업에서 진로교육 요소를 연계하여 수업하는 ‘교과연계(통합) 진로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진로체험은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서 진행되는 ‘진로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진로활동에는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그리고 진로체험 등이 있다. ‘2016년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진로체험은 진로심리검사나 진로상담과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학교 진로교육 운영 현황(2016)

(단위: %)

구분	중	고
진로와 직업 선택	76.6	46.8
진로심리검사 실시	99.7	99.3
진로상담 실시	100.0	100.0
진로체험 실시	99.8	99.0

자료: 진로교육 현황조사(2016), pp.161-162

2. 진로체험 관련 법령

1) 진로교육법

진로교육의 개인적·사회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2015년 6월 22일 「진로교육법」을 제정하여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평생에 걸친 진로개발역량을 배양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진로교육법」의 제정 이유는 진로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시

4) 2011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기 시작하였는데, 일반교과 교사 중 담당 교과목을 변경할 교원을 선발하여 570시간(39학점)의 부전공 자격연수를 제공한 후 배치하였다. 2014년 기준 약 94.9%의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었다.

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진로 체험 및 상담 기능 확대,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진로교육 협력체계의 법적·제도적인 확립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⁵⁾

「진로교육법」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데, 제1장 총칙에서는 동 법의 목적(제1조), 정의(제2조), 기본방향(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5조)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2장과 제3장에서는 각각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진로교육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제4장은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가진로교육센터(제15조)와 지역진로교육센터(제16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규정(제18조),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중에서 진로체험과 관련하여서는 제5조 3항에 진로체험의 기회 제공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서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체험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의 설치 운영을 제16조에 규정하고 있고, 진로체험 제공 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발굴 등에 관하여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20조에서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6> 진로교육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

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IsInfoP.do?IsiSeq=172382&IsId=&efYd=20151223&chrClsCd=010202&urlMode=IsEfInfoR&viewCls=IsRvsDocInfoR#000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p>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p>
제8조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p>①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 학교"라 한다) 학생의 발달 단계 및 학교의 종류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12조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p>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p> <p>③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수업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14조 (대학의 진로교육)	<p>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제15조 (국가진로교육 센터)	<p>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이하 "국가진로교육센터"라 한다)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2. 진로정보망 구축·운영 3. 진로심리검사 개발 4. 진로상담 지원 5.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6.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7. 진로전담교사 교육 8.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9.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10.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p>③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p>
제16조	<p>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p>

<p>(지역진로교육 센터)</p>	<p>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제18조 (진로체험 지원)</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 (협력 체계 구축 등)</p>	<p>①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진로교육법은 현행의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서 진로교육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진로교육을 법제화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법률을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정해숙 외, 2015: 60). 진로교육법 제정 직후 개최된 인재개발포럼의 기초발제에서 진미석(2015)이 주장했듯이⁶⁾, 진로교육법은 초·중등학교 대상의 진로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나 대학의 진로교육,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업중단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의 진로지도 시책 마련 등을 규정하여 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으로도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 법안의 대다수 조항에서 진로교육의 지원에서 교육부 장관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고 지역의 진로교육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등과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 진로교육, 취약계층의 진로교육, 공공기관의 진로체험기회 제공 책무 등을 고려할 때 진로교육법은 교육부 장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 많지만, 유관중앙부처, 특히 고용부, 여성가족부와의 협력체계,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의 협력과 연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6) 뉴스와이어(2015.07.1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법 제정, 진로탐색 기획의 토대 마련”

2)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

교육부는 「진로교육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3월 31일자로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였다.⁷⁾

동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진로체험 제공기관의 범위(제2조), 업무 담당자 지정, 진로체험처 등록, 진로체험 운영 횟수 및 절차 등 진로체험 운영에 대한 규정(제3조, 제4조, 제5조), 진로체험 운영 현황 조사, 진로체험 운영 실적 공개, 평가 반영 등 진로체험처 운영 관리에 대한 규정(제6조, 제7조) 등을 명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7>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로교육법」 제5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의 진로체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범위)	<p>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하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 기관 범위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를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시·도청, 시·군·구청,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3.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p>②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업무의 특성, 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기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제4조 (진로체험처 등록)	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정보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7)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44087>)

제5조 (진로체험 운영)	①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학교의 진로체험 수요를 고려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체험 제공 1개월 전까지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일정, 내용, 체험 인원, 담당자 등의 정보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진로체험지원전산망을 통해 참여 학교를 배정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④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	---

위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진로체험을 제공해야 하며,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정보 및 운영 실적을 등록하는 것 또한 의무사항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법적 규정들을 인천시 소재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운영 현황은 어떠한지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방향을 제안함으로써 인천시 진로체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3)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

중앙정부의 진로교육법 제정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진로교육 지원 조례」가 인천시교육청에 의하여 2016년 9월에 제정되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진로교육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하며(제4조), 직업체험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제6조),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진로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제7조 및 제9조), 진로체험 시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14조). 진로체험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2-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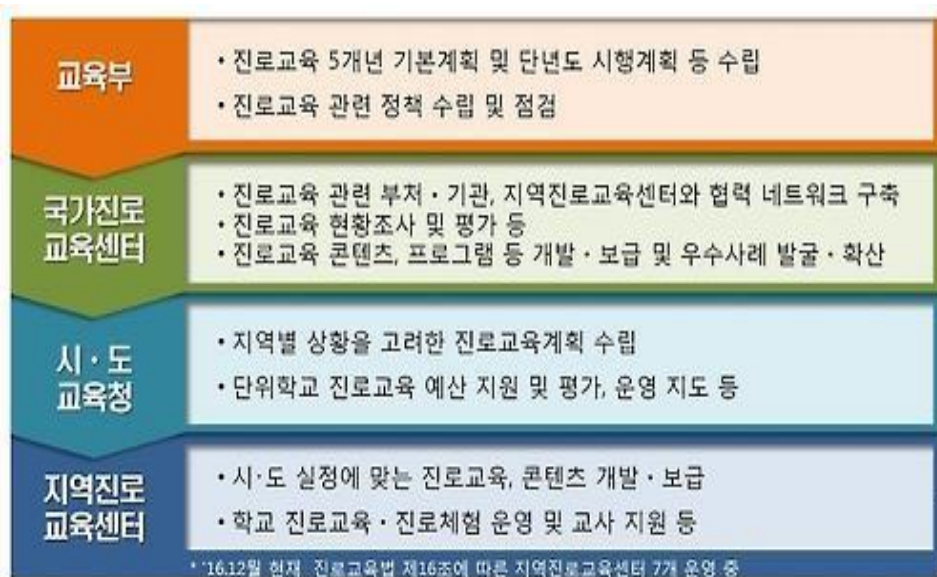
<표 2-8>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1조(목적)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진로교육 기본계획)	<p>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로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진로교육 홍보 및 예산확보 방안 3.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진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직업체험 기관 지정)	<p>① 교육감은 학생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업, 비영리사회단체 등을 직업체험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p>
제7조 (진로교육지 원센터)	<p>① 교육감은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교육지원청 별 진로교육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p> <p>③ 센터에는 진로교육과 직업체험에 필요한 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p>
제8조 (센터 및 지역센터의 업무)	<p>제7조의 센터 및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관리 2.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과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는 허브 역할 4.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5. 기초자치단체, 기업,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진로교육협 의회 설치)	<p>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진로교육지원센터 업무의 실효성 있는 시행 지원 3.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등)	<p>① 교육감은 각 지방자치단체, 대학, 진로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협력체계를 통하여 진로체험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여 개발·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3. 진로체험 운영 체계

1) 국가 및 지역의 진로체험 운영 일반 체계

진로체험은 진로교육의 한 영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진로교육 운영 체계 속에서 진행된다. 진로교육은 2017년 2월 국가진로교육센터가 개소하면서 비로소 국가적 차원의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교육부의 주도 하에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정부 부처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평가하고, 시·도교육청이 지역상황을 고려한 진로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진로교육센터가 시·도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면서 학교의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분담하게 된 것이다.



자료: 꿈길, <http://www.ggoomgil.go.kr>(2017.2.25. 검색)

<그림 2-1> 국가 진로체험 운영 체계

여기서 진로체험은 지역진로교육센터가 지원하는 진로교육의 한 영역인데, 교육부에서는 학교의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미 교육지원청과 관할 지자체,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진로체험지원단’을 꾸려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진로체험지원단’의 실무기구로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체험처를 발굴하고

학교와의 매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⁸⁾ 다음은 진로체험 관련 기관의 주요 역할을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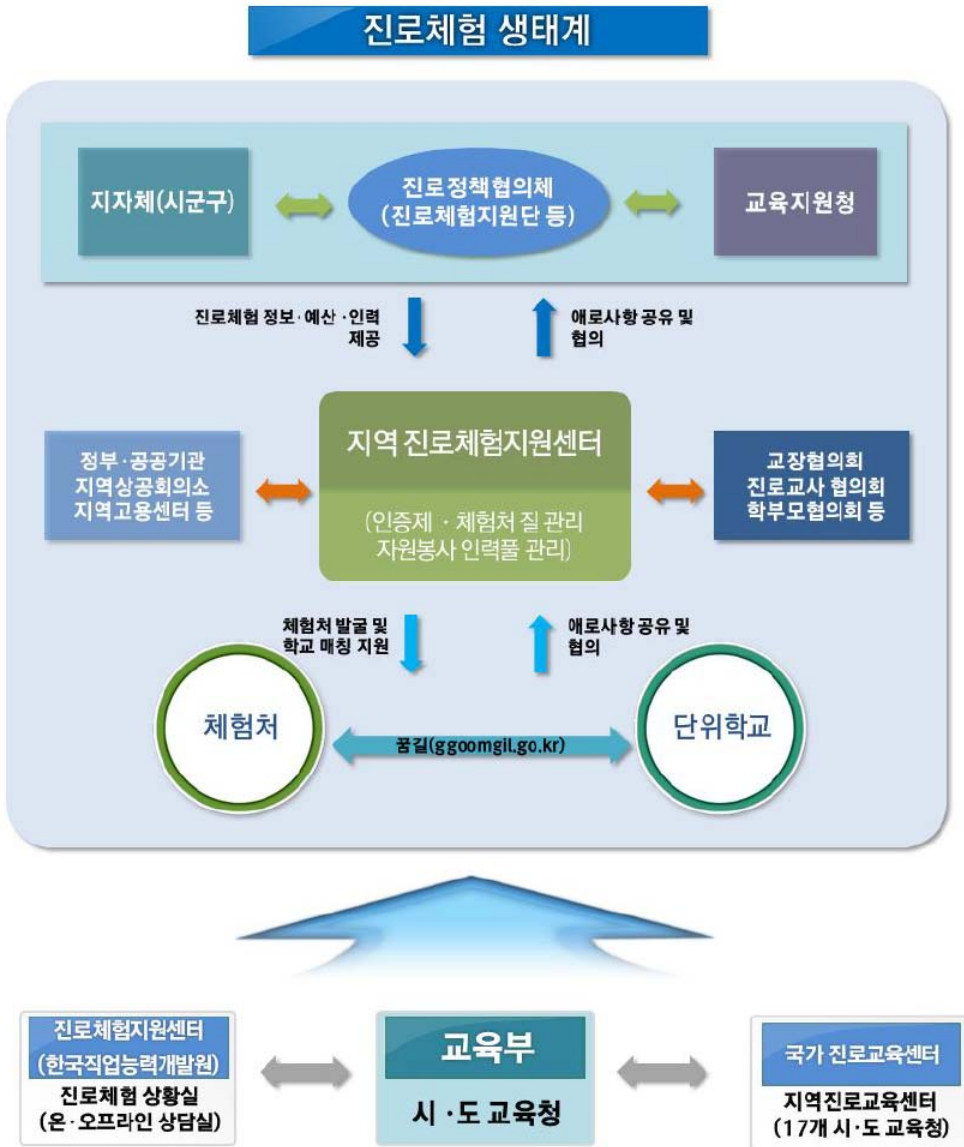
<표 2-9> 진로체험 관련 기관의 주요 역할

구분		주요 역할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지원단	교육지원청	- 지역사회 진로체험 기획·총괄 - 체험처 정보 제공 및 예산 지원
	관할 지자체	- 공공기관, 기업 등의 체험처 정보 수집 및 제공 -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예산 지원
	지역사회 유관기관	- 지역사회 체험처 정보 제공 체험처 발굴·지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	- 체험처 발굴·관리 - 체험프로그램 컨설팅 - 체험처-학교 매칭 - 센터 자체 프로그램 운영
단위학교		- 체험프로그램 신청 - 배정받은 체험프로그램 운영
꿈길 (www.ggoomgil.go.kr)		- 체험처 및 체험프로그램 관리, 체험처-학교 매칭을 위한 시스템

자료: 꿈길, <http://www.ggoomgil.go.kr/front/info/info03.do?rootMenuId=01&menuId=0103>

결국 지역에서는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로부터 체험터를 제공받아 꿈길 사이트를 통해 단위학교와 매칭함으로써 진로체험을 운영한다.

8) 도입 초기에는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이었으나, 최근 '진로체험지원단'으로 통칭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자료: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대한상공회의소(2017), p.9

<그림 2-2> 진로체험 운영체계

결국 지역사회에서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기관은 시·도 내 기초자치단체별로 설립된 진로체험지원센터이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는 216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에는 11개소의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운영되었는데, 위탁운영이 7개소, 지자체 직영이 3개소, 교육청 직영이 1개소였으나, 2017년 7월 기준으로는 지자체 직영기관이 2개소로 모두 10개소의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표 2-10> 시도별 진로체험지원센터 현황(2016. 12월 기준)

(단위: 개소)

구분	교육지원청	지자체 수	운영 형태			
			위탁운영	지자체 직영	교육청직영	합계
서울	11	25	21	4	0	25
부산	5	16	6	0	5	11
대구	4	8	0	0	4	4
인천	5	10	7	3	1	11
광주	2	5	3	0	0	3
대전	2	5	4	0	0	4
울산	2	5	5	0	0	5
세종	1	1	0	0	1	1
경기	25	31	20	10	1	31
강원	17	18	16	0	2	18
충북	10	11	10	0	0	10
충남	14	15	14	0	0	14
전북	14	14	5	0	9	14
전남	22	22	14	0	8	22
경북	23	23	10	0	13	23
경남	18	18	0	1	17	18
제주	2	2	2	0	0	2
총계	177	229	137	18	61	216

자료: 교육부(2017. 2). '17년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계획(안) 참고.

한편 교육부는 진로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꿈길 사이트(www.ggoomgil.go.kr)에 의하면, 인증제를 운영하는 목적은 국가가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처에 대한 인증을 통해 진로체험의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체험처의 진로체험 제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진로교육법」 제19조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인증 대상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출연 연구기관·연구회,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대학, 기업, 개인사업자(작가, 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제외) 등이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3차에 걸쳐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표 2-11>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절차

인증 절차		내 용
1차	진로체험지원센터	인증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통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후 인증심사 지표에 따른 채점표 작성
2차	권역별 인증심사단	1차 심사결과(신청서류 포함)를 토대로 2차 정성평가 실시 이후 진로체험기관 인증 후보기관을 선정
3차	진로체험기관 인증위원회	인증심사단에서 제출한 인증 후보기관을 대상으로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

자료: 꿈길, <https://www.ggoomgil.go.kr/front/exp/expPlaceCertificationInfo.do?rootMenuId=09&menuId=0901>

인증심사지표는 체험기관 및 체험처 성격, 체험처 환경 및 안전, 체험프로그램의 운영과 질 등 3개 영역 1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인증지표 총점(30점) 기준 심사점수가 20점 이상이고, 전 영역 지표에서 부적절한 지표가 하나도 없는 경우이다. 다만, 최근,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제기,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한 신청기관은 인증심사 대상에서 배제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인증기간 중에 지원서에 기재한 무료 프로그램을 연 4회 이상 필수로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진로체험 지원 실적 등을 토대로 재심사를 거쳐 재인증(인증 효력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 중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

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인증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진로체험기관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기관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기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즉, ‘꿈길’ 사이트 내 인증기관으로 탑재되고 체험기관명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의 우수 프로그램을 교사·학부모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현장 멘토 활용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자료: 꿈길, <https://www.ggoomgil.go.kr/>

<그림 2-3>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마크

2017년 10월 현재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된 기관이 전국에 1,552개소가 있으며, 인천광역시에는 인증된 기관이 36개소로서, 개인사업장이 4개소, 청소년/시민단체 관련 기관이 4개소, 민간기업 1개소, 대학교 3개소, 공공기관/공기업 관련 기관이 24개소이다.⁹⁾

2) 인천광역시 진로체험 지원 체계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진로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청의 교육협력담당관 내에서 자유학기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6년 자유학기제

9) 참고로 서울의 인증기관은 150개소, 경기도는 211개소, 대구는 40개소, 부산은 113개소이다.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선택을 지원하고자 진로 교육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여러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에 진로체험 인프라 확보를 위해 시와 교육청, 학교, 체험처 간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신규 체험처 발굴을 위한 ‘진로체험개발단’을 구성·상설 운영하고, 여러 체험처들과 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체험처 및 체험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교육인프라박람회’도 교육청과 함께 개최하고, 우수 진로체험기관을 선정하여 표창 및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을 추천하며 체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교육청의 경우 교육혁신과의 진로진학팀에서 진로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고교의 경우 진로체험을 연간 1회 이상 권장하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하며,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진로체험 지원의 일환으로, 교육청의 진로교육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인천진로교육센터가 2017년에 개소하였다. 인천진로교육센터는 기존에 시청이 운영하던 청소년진로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였던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이 역시 운영하게 되었다. 인천진로교육센터는 교육청의 위탁으로 운영하는 광역 센터로서, 주요 사업으로 진로교육 지원사업 및 상담, 진로전담교사 및 학부모와 기관실무자 대상의 진로교육연수,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 진로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양질의 진로체험처 발굴 및 DB 구축 등을 수행한다.

역시 조례에 의거하여 인천진로교육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위원은 총 9명으로 당연직 2명과 위촉직 7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외에 교육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진로진학팀과 인천진로교육센터 팀장이 협의회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센터들이 지역별로 산재해 있어 이들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광역급 진로교육지원센터가 필요하여 올해 개소한 것이다.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군·구별 진로체험지원센터는 민간에서 혹은 기초지자체가 먼저 유사한 활동을 시작하였던 것을 교육청이 진로체험지원센터로 역할을 부여하면서 현재는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된 곳도 있고, 교육청이 위탁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점센터가 진로체험지원센터로 된 곳도

있다. 2017년 10월 기준 인천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12> 2017년 인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현황(2017. 10월 기준)

소속 교육 (지원)청	기관명	관할 지역	운영형태	학생대상 자체운영 프로그램수	체험 학생수
시교육청	인천진로교육센터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인천시	인천광역시 교육청(위탁)	12개	6,190명
동부	남동구청 진로체험지원센터	남동구	남동구청 (직영)	22개	2,868명
동부	연수구진로지원센터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연수구	연수구청 (위탁)	15개	5,985명
동부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동구	인천광역시 교육청(위탁)	16개	2,155명
서부	서구진로체험지원센터 (서구청소년수련관)	서구	서구청 (위탁)	90개	6,812명
남부	남부진로체험지원센터 (사회문화정책연구원)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광역시 교육청(위탁)	17개	1,772명
남부	남구청 진로체험지원센터 (남구 진로교육센터)	남구	남구청 (직영)	16개	2,524명
북부	부평구진로체험지원센터 (부평구청소년수련관)	부평구	부평구청 (위탁)	8개	3,023명
북부	LOY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	부평구	인천광역시 교육청(위탁)	9개	2,900명
강화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강화	인천광역시 교육청(직속)	8개	1,951명

자료: 인천광역시교육청 내부 자료(2017. 10)

그런데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역할은 센터마다 차이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초지자체와 교육청, 민간단체 등의 관심에 따라 혹은 협력에 따라 설립된 연도가 다르고, 운영 체계도 다르다. 가령 남동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경우 남동구청의 관심으로 2013년에 가장 먼저 설립되었는데 2014년에 교육청의 제안과 지원으로 기존의 교육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진로탐색과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연수구진로지원센터의 경우 위탁운영기관의 열의와 관심으로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진로탐을 꾸려 진로적성과 진로탐색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2013년 교육청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연수구와의 협력과 지원으로 2014년에 정식 교육청 지정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되었고, 2017년에는 교육부 지원 권역별 거점센터로 지정되어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직업체험 연계 사업 이외에도 직업탐색, 학교로 찾아가는 직업체험 및 직업인 특강, 진로상담과 진로설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러나 남구의 경우 2016년에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게 되면서 기초지자체의 직영으로 센터를 개소하였고,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나 LOY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의 경우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는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은 크게 수행하기 어려운 처지이다. 더구나 계양구 지역을 관할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아직 개설되지 않았다. 기초지자체별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면, 기초지자체 내 진로체험처에 대한 정보 안내와 진로체험처와 학교와의 매칭 등이 어려워 진로체험학습을 시행해야 하는 학교들이 어려움을 겪기 쉽다. 또한 기초지자체 내 진로체험이 활성화되기도 어렵다.

위 표에서 보듯이, 관할 지역마다 진로체험지원센터의 개수가 다르고, 운영형태도 다양하고, 센터가 운영하는 자체 프로그램 수도 격차가 큰 편이다. 결국 이는 진로체험지원센터의 규모, 운영 예산과 인력, 수행 역할 등에서 차이가 크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제3절 선행 연구 및 주요 사례 검토

1. 선행 연구 검토

진로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진로특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한 연구와 진로교육의 효과와 정책에 관한 실천적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진로체험의 분야에 한정하여 선행연구를 대별해 보면, 진로체험의 효과에 관한 연구와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와 관련된 연구들 중 많은 학위논문과 학술연구들(권일남, 2015; 박현진, 2015; 오은연, 2014; 이상준, 2011; 임연, 2005; 고재성 외, 2008; 맹영임·임경희, 2008; 박가열, 2008; 정철영 외, 2012; 조성심·주석진, 2010)은 진로체험 활동이 학생과 교사들의 진로인식, 진로정체감, 직업가치관, 진로직업역량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은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루어진 권일남(2015)의 연구는 청소년의 진로태도가 독립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짐을 밝히고, 진로직업역량의 변화에 성별 차이가 있으며, 진로체험센터가 진로직업역량에 긍정적으로 활용됨을 드러냈다. 그는 서울 소재 진로체험센터를 방문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첫째, 학생들의 진로태도에는 자유학기제 직영학교 형태보다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은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과 사람에게 직업 연락을 취하는 경향을, 여학생은 주로 심리검사나 인터넷 검색과 같은 형태로 진로태도를 보였다. 둘째, 청소년들의 진로태도 중 독립성의 수준을 보면 의존형보다는 자발적이고 자기독립적인 의사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는 부모나 특정인의 직업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기초한 직업선택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진로체험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로직업역량의 변화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역량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진로체험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자유학기제 추진중점학교나 일반학교의 형태와 관계없이 진로

직업역량에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박현진(2015) 또한 진로체험활동을 통해 진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학생들이 다수였음을 검증하였는데, 전남 순천시 소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진로체험활동 전·후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체험활동을 통해서 희망하던 진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그 진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다 견고히 한 1유형, 희망하였던 진로이었지만 체험을 통해서 희망 진로가 변화한 2유형, 체험 전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체험을 통해 관심 있는 진로를 새롭게 발견한 3유형, 체험 전에도 관심이 없었지만 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는 맞지 않음을 발견한 4유형, 마지막으로 진로인식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5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진로체험활동을 통해 진로에 대한 인식이 생긴 학생들은 74.5%였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25.5%였는데, 그 이유로는 자신이 원하는 적성과 흥미가 진로체험활동과 맞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오은연(2014)도 지역사회 기반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 이후 진로정체감과 직업가치관의 긍정적 인식이 향상되었음을 검증하였다. 지역사회 기반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모형을 토대로 한 서울시교육청의 「청·진·기(청소년 진로체험의 기적)」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과 직업가치관에 대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진로정체감 향상을 보였다. 하위요인별 사전·사후검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섯 가지 하위영역인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자기주장, 자기존재의식이 모두 사후에 사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하위요인 중 독특성과 자기주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프로그램 사후 직업가치관 인식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그런데 이들의 연구는 모두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고등학생들이 배제되어 있고,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특정 효과에 주목하여 검증한 연구라는 한계를 가진다.

진로체험 관련 정책연구로는 유한구 외(2015), 정윤경·김나라·서유정(2011), 김기현·맹영임(2011), 김은석 외(2013), 이혜숙·이영주(2016) 등을 들 수 있다. 김기현·맹영임(2011)은 우리나라 청소년 진로체험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지

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부와의 업무협약 관련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청소년지도자 대상 연수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유한구 외(2015)는 자유학기제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진로체험 인프라 맵을 개발하여 제공하였고, 김은석 외(2013)는 직업체험 시설에서 청소년들이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안하였으며, 정윤경 외(2011)는 직업체험 중심 진로교육의 실태 조사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직업체험 중심의 진로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 중 김기현·맹영임(2011)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관련 시설과 이용기관 간의 프로그램 연계 시 기존에 관계형성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연계를 시도할 경우 서로 간의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므로 상호 기관 간에 신뢰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이러한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첫째,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초 사전협약이 필요하고, 둘째, 적정한 대상자 선정이 필요하고, 셋째, 프로그램 내용 조정시 과도한 변경은 프로그램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사후 프로그램 평가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청소년지도자 대상 연수교육(안)은 연수시간 6학점, 연수기간 2주로 연수형태는 다양하게 운영하며, 학교급별·계열별로 연수과목을 달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된 유한구 외(2015)의 연구는 진로교육법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음에 따라 실제 중앙 및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진로체험처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실태를 조사하고,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진로체험처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발굴, 정비하여, 지역별 및 진로체험 유형별로 진로체험처와 진로체험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맵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진로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첫째, 공공기관의 진로체험처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수립, 둘째 진로체험 정보 제공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셋째 자유학기 진로체험의 활성화 지원 필요 등의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혜숙·이영주(2016)은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

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선도적 추진에 비해 서울시의 준비와 지원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자유학기제 활성화 의견으로는 다양한 체험 기회의 확대, 학교 내 자유학기제 연계 활동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장려, 지원체계 간 실질적인 협업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유기적인 협력, 진로직업체험센터의 거점 역할 강화, 다양한 예산 확보 방안 강구 등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 공공기관의 자유학기제 지원 관련 실태 및 사례 조사를 통해 진로체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 운영 기반을 확보해야 하며, 진로체험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전문성 향상 지원, 평가지표 반영, 진로체험처의 질 관리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표 2-13> 주요 선행연구 개관

구분	연구자 (연구년도)	연구주제	연구내용
진로체험 효과에 관한 연구	권일남 (2015)	자유학기제 청소년 진로체험이 진로탐색과 진로직업역량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 소재 진로체험센터를 방문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로직업역량의 변화에 성별 차이가 있으며, 진로체험 센터가 진로직업역량에 긍정적으로 활용됨이 나타남.
	박현진 (2015)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진로체험활동이 학생들의 진로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전남 순천시 소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진로체험활동 전·후 보고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진로체험활동을 통해 진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학생들이 다수였음을 검증함.
	오은연 (2014)	직업체험을 활용한 진로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교육청의 「청·진·기(청소년 진로 체험의 기적)」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정체감과 직업가치관에 대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사회 기반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 이후 진로정체감과 직업가치관의 긍정적 인식이 향상되었음을 검증함.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김기현· 맹영임 (2011)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 협력 방안 연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관련 시설과 이용 기관 간의 프로그램 연계 시 기존에 관 계형성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협력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 가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연계를 시도할 경우 서로 간의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므로 상호 기관 간에 신뢰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유한구 외 (2015)	자유학기·진로체험 인프라 맵 개발	진로체험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진로체험처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수립, 진로체험 정보 제공 및 운영 활성화 방 안 수립, 자유학기 진로체험의 활성화 지원 필요 등의 정책 제언 제시함.
	이혜숙· 이영주 (2016)	서울지역 자유학기제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진로탐색 활동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 면서,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해 자유 학기제 운영 관련 공공기관의 자유학기 제 지원 관련 실태 및 사례 조사를 통 해 진로체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진 로체험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전 문성 향상 지원, 평가지표 반영, 진로 체험 프로그램의 질 관리 등이 필요함 을 제안함.

이상의 정책연구는 대개 국책연구원의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이나 교사연수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연구들이고, 시·도연구원에서는 이혜숙·이영주(2016)의 연구가 유일하게 자유학기제 관련 진로탐색 활동 제공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도 주장하고 있듯이, 진로교육법(2015)과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에 관한 규정(2016)의 제정으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체험터가 중요해지고 있다. 비단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중학생들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생과 고등학생에게도 진로체험은 진로교육의 일부분으로 진로의식 형성과 진로의사결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진로체험터가 실효성 있는 배움터가 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구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지역사회의 체험터에서의 체험 기회 제공 자체가 우선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진로체험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진로체험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지역의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진로체험교육에 관한 인식과 진로체험 제공 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진로체험 제공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에서 진로체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사례 검토

1) 국내사례

국내 사례의 경우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의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곳은 서울시가 가장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25개 전 자치구당 1개소씩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진로직업체험 ‘청진기(청소년 진로직업체험의 기적)’을 운영 중에 있다. 모든 자치구는 아니지만, 1/4 정도의 자치구가 지원 조례도 제정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서울시의 진로체험 운영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¹⁰⁾

서울시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교육청과 행정구청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프로그램 운영 관련, 행정구청은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관련이다. 자율협의체로 권역별 진로직업체험센터 협의체를 구성하여 5개 권역 간사·부간사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자원 발굴·유지를 위한 워크숍, 자치구 업무담당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협의회, 25개 자치구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컨설팅 장학을 연 2회 운영한다.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역할 및 필수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0) 이 부분은 서울시교육청(2017)의 2017년 진로교육 활성화 계획을 참고하였다.

<표 2-14> 서울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역할 및 필수 프로그램

구분	내용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학교와 직업체험장 간의 유기적 연계를 지원하는 허브(Hub) 역할 • 자치구별 지역사회 직업체험장 자원 발굴 및 일터 멘토 관리 • ‘꿈길’을 활용한 자치구별 진로체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 서울형 자유학기제 및 현장직업체험(청진기) 지원 • 단위학교(초·중·고)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 수요자 요구 토요진로학교 및 상설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필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직업체험센터별 특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 진로직업체험센터별 필수프로그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치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별 특화프로그램 개발 1종 이상 2. 청진기 - 관내 중·고생 지원 3. 초등 진로전담교사 협의체 운영 4. 중·고 진로진학상담교사 협의체 운영 5. 학부모 진로교육지원단 및 퇴직시니어 연계 프로그램 운영 6. 진로콘서트 운영 - 학생 대상 2회 이상, 학부모 대상 1회 이상 7. ‘꿈길’(진로체험 지원전산망) 활용·관리(관리자 지정 운영) 8.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운영 참가 (예산 300만원 편성) 9. 두레상담 운영 (예산 100만원 편성) 10. 진로직업체험센터 지원 연수 및 워크숍 실시 (예산 100만원 편성)

또한 서울시는 안전하고 양질의 체험처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서울학생배움터 인증제를 운영한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정시 서울학생배움터 현판 배부를 우선 고려하고, 서울학생배움터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우수업체에 교육부 교육기부를 인증한다.

2016년 11월 기준 서울시 체험처 및 프로그램의 꿈길 등록 현황을 보면, 체험처 수는 총 31,485개로, 개인사업장이 11,631개로 가장 많이 등록되었으며 그 다음은 공공기관/공기업으로 8,166개가 등록되었다. 체험프로그램 수는 공공기관/공기업이 21,987개로 가장 많고, 개인사업장 13,286개, 학교/대학교가 11,168개 순이다. 또한 2016년 11월 기준 프로그램 제공 횟수는 총 315,408회이다.

2016년 진로체험 유형별 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진로체험 유형 6개 가운데 가장 참여율이 높은 것은 현장직업체험(6시간 이상)으로 21.9%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의 경우는 직업실무체험형이 27.9%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

과체험형이 23.8%로 가장 높다. 가장 낮은 유형은 현장직업체험형(6시간 미만)이며 중학교는 6.6%, 고등학교는 6.0%로 나타났다.

2) 해외사례

진로체험 운영에 관한 해외사례로 아일랜드의 TY 프로그램, 일본의 커리어스타트위크(Career Start Week) 캠페인, 영국의 현장직업체험(Work Experience) 사례를 운영의 특징과 지원 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¹⁾

아일랜드는 전환학년제(또는 과도학년, Transition Year, 이하 TY), 즉 생애 첫 국가공인 시험인 중학교 졸업시험을 통과한 15-16세의 학생들을 위해 고등학교 2년 과정 전에 1년 간의 유예기간을 선택적으로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974년에 처음 실시된 TY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체험활동 중 하나가 직업체험으로서¹²⁾ 실습기간은 1주부터 4주까지로 학교마다 다른데, 대부분의 학교는 2주를 실습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TY 프로그램의 운영 과정은 TY 프로그램 기획 - 현장실습 배치를 위한 준비 - 현장실습 - 결과보고 - 평가 등으로 이루어진다. 견학형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주로 행사성, 일회성의 성격이 많은 우리나라의 직업체험과 달리, 아일랜드의 각 학교는 교육부의 지침 내에서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에 맞는 고유의 TY 프로그램을 설계, 운영한다. 참여 학생은 실제로 일을 하기보다는 현장을 관찰함으로써 특정한 일과 관련된 업무를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정 분야의 한 사람을 관찰하거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Work shadowing’을 통해 실습 장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엔지니어, 건축가, 의료관련, 법 관련 등 전문적인 업무를 이해하도록 한다. 그밖에 대학교의 실습 장소에서 실험, 연구, 대담, 교내 투어, 시연 등 실질적인 경험을 하기도 한다. TY 프로그램은 학교가 근로 현장과 긴밀한 관계를 세우고 지역사회 내에서 그 지역 고용주들, 업체들과의 유대감을

11) 이 부분은 정윤경 외(2011, 177-229)를 참고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12) 전환학년제는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기 초에는 스포츠 활동이나 야외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친구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학기 말에는 체험하고 습득했던 것들을 전시회나 발표회를 개최하여 발표할 수 있다(유영란 외, 2015: 13).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특히 업체의 고용주가 되어 후배들을 돕기 원하는 졸업생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의 주관으로 전국 단위의 직업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리어스타트위크’(Career Start Week) 캠페인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5일 이상의 직업체험 및 인턴십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1주일 직장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도쿄시의 ‘워크 워크 워크 도쿄’(work work week Tokyo)와 니가타현 조에츠(上越)시의 ‘꿈 챌린지’ 등이 있다(유영란 외, 2015: 25-26). ‘워크 워크 워크 도쿄’는 2009년에 98.9%의 학교가 참여할 정도로 확산되었으며,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계, 산업단체 및 학교, 지역 교육위원회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업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조에츠시의 ‘꿈 챌린지’는 교육청 산하에 NPG 단체에 슈퍼바이저를 두고, 학교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를 두는 프로그램으로서, 온라인 시스템과 코디네이터가 참여함으로써 교사들의 부담은 줄이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직업체험은 대체적으로 사전학습 - 체험 - 사후학습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전학습은 체험활동을 가기 전날 또는 그 이전에 학교에서 미리 체험할 장소와 직업, 그리고 어떠한 체험을 하는지 알아보는 활동으로, 일본은 직업체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의 사전학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2011년부터 커리어교육에 대한 재계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커리어 교육 코디네이터’에 대한 교육 인증 프로그램과 커리어 교육을 제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커리어 교육 대상’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다(유영란 외, 2015: 26).

영국은 1973년 교육(현장직업체험)법(Education (Work Experience) Act 1973)을 발표하여 의무 교육의 마지막 2년 동안은 현장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한 과정으로서 학생의 직업체험을 허용하였다. 이후 2004년 9월부터 직업기초학습(Work-related learning) 과정을 의무화하는 교육과정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취업과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 특기, 이해를 개발하기 위하여 직업과 관련된 맥락을 활용하는 모든 계획된 활동’으로 정의된다. 직업기초학습은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많은 학교에서 1~2주간의 현장직업체험을 채

택하고 있다. 현장직업체험은 'Key stage 4 과정'(만 14~16세)의 학생들이 주로 참여하며 1~2주간 직업 현장에서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는 학교와 학생에 따라 'Sixthform 과정'(만 16~18세)에 있는 학생들 중 일부가 현장직업체험을 처음으로 경험하거나 'Key stage 4'에서 했던 체험의 연장으로 다시 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약 95%의 'Key stage 4' 학생과 약 50%의 'Sixthform 과정'의 학생이 현장직업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 현장직업체험의 운영은 개별 학교 단위로 운영되며, 무엇보다 학생의 능동적 선택과 주도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정부 부처와 외부기관이 직업체험의 운영에 참여하는 비중은 적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산업체를 연결하는 지원체계인 '교육·산업 파트너십 네트워크(Education Business Partnership Network)'가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운영하는 센터가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 내의 한 부서로 속해 있어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 공공기관인 '전국직업체험의회(NCWE: National Council for Work Experience)'와 'Jobcentre Plus', 'DirectGovm', 기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단체 등 많은 조직과 단체들이 직업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은 스스로 직업체험의 기회를 모색하거나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학교는 학생의 직업체험을 돕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직업체험의 운영이 학교와 담당 교사의 역량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제4절 소결

사회의 급변으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가 다양해지고, 진로선택이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되면서, 행복한 삶을 위하여 진로교육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자신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진로교육의 한 영역인 진로체험은 자유학기제의 실시와 더불어 진로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하였다. 자유학기제에서 진로탐색

활동이 필수로 수행되고, 이외에도 진로집중학년/학기제, 진로집중과정 등의 실시로 진로체험활동은 더욱 중요시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가 차원에서도 진로교육종합계획을 마련하면서 진로교육 운영체계를 구축하였고, 이와 함께 진로체험 지원체계도 마련하였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진로교육법 제정과 더불어 교육부의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여 공공기관들의 진로체험 제공을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은 더 긴밀해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하여 지역마다 지원체계는 아직 다 마련되지 않았고, 그 규모와 역할 등에도 차이가 있다. 더욱이 인천의 경우 진로교육센터와 지역진로교육센터는 교육청의 조례에 교육청의 권한으로 지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진로체험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진로교육법에도 인천시교육청 조례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원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지자체는 국가와 더불어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의 책임자로서 진로체험을 지원할 수 있고, 교육감과 지자체는 진로체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체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연계와 협력이 없다면 진로체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인천진로교육센터와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가 구비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규모와 운영 형태, 역할 등에 편차가 커서 지원체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선행연구 및 주요 사례 검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로체험활동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사회에서 진로체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는 지역의 아이들을 낳고 키워 지역에서 원하는 직업을 수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삶의 터이자 교육의 터로서 책임을 다 해야 한다. 학교와 학생 개인의 역량에 따른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들이 진로체험, 직업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에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교육청과 협력하여 자치구별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학교의 체험처 매칭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해외사례의 경우에는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아일랜드의 경우 졸업생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커리어교육 인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계의 참여를 제고하고 있고, 영국은 교육·산업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설계하고 선택한 직업체험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일회성, 견학형 프로그램이 아닌, 5일 이상의 참여를 통해 특정 직업군과 직업현장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제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학교와 연계하여 진로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진로교육 분야에 기여해야 한다. 진로체험은 학생들을 성숙한 사회의 직업인으로 양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를 유지, 발전시킨다. 지역사회가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생태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부터 사회적 책무를 다 하기 위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진로체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들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연계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Activation of the Career Experience Program of Public Organization in Incheon

제3장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 결과

제3절 소결

제3장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1) 조사 대상 공공기관 현황

교육부의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에 고시된 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 3-1> 진로체험 제공기관의 범위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시·도청, 시·군·구청,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3.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인천지점(지사)들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로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의회, 군·구청,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들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는 정부의 공기업(시장형 및 준시장형)과 정부출자출연기관(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을, 지방공기업으로 인천시 상수도 및 하수도 같은 지방직영기업과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같은 공사·공단 등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관련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중앙정부의 출자출연기관들이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도 공공기관

의 성격에 부응한다고 판단하여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즉, 인천문화재단, 인천발전연구원, 부평문화재단 등의 기관들도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그리고 설립 주체와 운영 주체가 다른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사무기관들까지 포함하여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영하는 기관은 포함되고 위탁하는 기관은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민간위탁기관’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유의할 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정부공기업과 정부 출자출연기관에 한정되지만,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공공기관은 이보다 범위가 커서 공공성을 띠고 공익을 위해 설치,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일반적인 공공기관을 다 아울러 지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는 협의의 ‘공공기관’, 후자는 광의의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공공기관을 언급하므로, 이를 모두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 조사 대상으로 설정한 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2> 진로체험 제공기관 현황

구분		해당 공공기관 (예시)	계
중앙행정기관		경찰서, 지방검찰청, 우체국, 경인지방식약청, 지방법원, 선거관리위원회, 고용노동지청 등	70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주민자치센터, 교육(지원)청, 의회, 소방서, 보건소, 시 및 군·구 직영기관(평생학습관, 여성복지관, 아동복지관, 도서관, 박물관 등) 등	280
관련 법령의 '공공 기관'	정부공기업	인천항만공사, 한국전력공사 제물포지사·남인천지사, 한국감정원 인천지사,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 등	18
	정부 출자출연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중부지사,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등	40
지방 공기업	지방공기업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시설관리공단 및 시설관리공단 운영 기관 등	47
기타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인재육성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시여성가족재단 등	15
	공공서비스 민간위탁기관	지방문화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인력개발센터, 자원봉사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역자활센터, 치매통합관리센터 등	153
계			623

2) 통계분석을 위한 공공기관의 분류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공공기관을 통계분석을 위해 다시 두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하나는 앞서 제시한 기관의 운영주체 유형별 분류이고, 다른 하나는 기관의 성격별 분류이다. 운영주체 유형별 분류는 앞서 제시한 대로 일곱 가지 구분에 따라 구분하였다.

<표 3-3> 설문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 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시·도청, 시·군·구청,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정부공기업(정부 공사, 공단)
- 정부 출자출연기관
- 지방공기업(인천시 공사, 공단)
-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 공공서비스 민간위탁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기관성격별 분류는 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주민 대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교육·문화 관련 기관과 복지·상담 관련 기관으로 구분하였다. 기관성격별 분류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동일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직영하는 기관도 있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도 있어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운영주체 유형별 구분으로는 서로 다른 유형에 속하게 되어 비교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동구처럼 직영하는 센터는 운영주체가 구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속하게 되지만, 중구처럼 위탁으로 운영하는 센터는 공공서비스 민간위탁기관 유형에 속하게 된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에 이러한 기관들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관성격별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상 두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각각의 유형에 속하는 기관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4> 통계분석을 위한 진로체험 제공기관의 분류

구분	구분	해당 공공기관(예시)	계
운영 주체 유형별 분류	중앙행정기관	경찰서, 지방검찰청, 우체국, 고용노동지청, 선거관리위원회, 경인지방식약청, 지방법원 등	70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주민자치센터, 교육(지원)청, 의회, 소방서, 보건소, 시 및 군·구 직영기관 (평생학습관, 여성복지관, 아동복지관, 도서관, 박물관 등) 등	280
	정부공기업	인천항만공사, 한국전력공사 제물포지사, 한국감정원 인천지사,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 등	18
	정부 출자출연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중부지사,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등	40
	지방공기업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군구시설관리공단 및 시설관리공단 운영 기관 등	47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인재육성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시여성가족재단 등	15
	공공서비스 민간위탁기관	지방문화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인력개발센터,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153
	소계		623
공공 서비스 제공 기관의 성격별 분류	교육·문화 관련 기관	박물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자원봉사센터, 문화원, 문화회관, 문화의집, 평생학습관 등	114
	복지·상담 관련 기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129
	소계		243

<표 3-5>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의 성격별 분류

구분		교육·문화 관련 기관	복지·상담 관련 기관	계
지방자치단체		54 (평생학습관, 도서관 등)	6 (여성회관 등)	60
지방공기업		28 (공단 위탁 문화회관, 도서관 등)	5 (공단 위탁 사회복지회관, 노인복지관 등)	33
기타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0	1 (재단 위탁 부평새일센터)	1
	공공서비스 민간위탁기관	32 (자원봉사센터, 지방문화원 등)	117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149
계		114	129	243

2. 조사 방법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인천시 공공기관 623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관련 업무 담당자와의 사전 연락 및 공문 발송을 통해 각 기관에 시행 요청을 한 후, 영종 및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공공기관은 대학생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영종 및 강화·옹진군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배포한 설문지는 모두 623부였고, 최종적으로 회수된 설문지는 472부로, 전체 회수율은 약 76%이다. 행정기관의 경우는 회수율이 높으며, 공기업의 경우 회수율이 낮은 편이다. 정부출자출연기관보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회수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6> 군·구별 설문대상 및 응답 공공기관 현황

구분	중앙 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정부 공기업	정부 출자출연 기관	지방 공기업	지방정부 출자출연 기관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기관	계
중구 (영종)	12 (5)	29 (6)	4 (2)	3 (0)	2 (1)	2 (0)	11 (0)	63 (14)
동구	2	18	0	0	0	2	11	33
남구	11	36	0	4	1	2	33	87
연수구	5	27	1	3	3	4	17	60
남동구	15	42	2	11	8	1	20	99
부평구	4	40	1	10	3	3	21	82
계양구	7	22	1	1	5	0	15	51
서구	8	33	6	7	17	1	16	88
강화군	4	22	1	1	8	0	7	43
옹진군	2	11	2	0	0	0	2	17
계	70	280	18	40	47	15	153	623
회신 (회수율)	59 (84.3)	230 (82.1)	2 (11.1)	22 (55.0)	29 (61.7)	14 (93.3)	116 (75.8)	472 (75.8)

주: 중구의 경우 영종을 포함한 전체 기관수임.

설문조사 분석은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빈도분석 외에 T-test, 카이스퀘어 검정, 다중응답 빈도분석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일부 문항의 경우 총계가 다른데 그 이유는 응답을 하지 않은 문항 즉 결측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항별 총계를 토대로 분석하였음을 감안해야 한다.

3. 조사 내용

설문지는 설문 대상 기관의 기본 정보를 묻는 영역과 진로체험 인식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2016년을 기준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에 대한 문항을 다르게 설정하였다. 설문문항은 유한구 외(2015)의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현황 조사」와 이해숙 외(2016)의 「서울지역 자유학기제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진로탐색활동 중심으로」의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절하게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표 3-7> 설문 문항 내용

조사 영역	조사 항목	대상	세부 내용
기관 기본정보	기관 정보	공통질문	기관명
			기관 유형
진로체험 설문	진로체험 에 대한 인식	공통질문	진로체험 운영 관련 문항
			진로체험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
			진로체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통질문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기관
		진로체험 프로그램 미운영기관	2016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 관련 문항
			2016년에 운영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수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학교와의 연계 경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유
			진로체험의 개선점에 대한 개선필요 정도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 요구
			새로운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의사
			2017년 새로운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무
			2017년 제공할 새로운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수
			향후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의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이유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 요구
	제공하기에 적절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형		
	향후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의사가 없는 이유		
2016운영 프로그램 현황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기관	진로체험유형/내용/대상/이용인원/운영횟수/참가비 /최초제공시기/2017 운영여부 등	

설문 결과는 공공기관들의 진로체험에 대한 인식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실시한 일반적인 설문결과와 2016년도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관들에게 작성하도록 한 프로그램 운영 내역 조사결과를 구분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제2절 조사 결과

1. 응답기관 기본 정보 분석

응답한 기관들은 모두 472개소였고, 기관 소재지별로 보면 남동구 소재 기관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남구와 서구, 부평구에 많은 편이다. 운영주체 유형별로는 지자체 기관이 49%로 가장 많으며, 공공서비스 민간위탁기관이 약 25%, 중앙행정기관이 약 13%를 차지한다. 472개 기관들 중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36.4%이고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 63.6%로, 인천 소재 공공기관들 중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 더 많은 편이다. 중앙정부 관련 기관은 83개소(23.3%)이고 민간위탁기관을 제외하면 지방정부 관련 기관은 273개소(76.7%)이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위탁기관 중 설문조사에 응해준 기관은 116개소이다.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의 성격별로 구분해 보면 교육·문화 관련 기관은 93개소로 50.5%, 복지·상담 관련 기관은 91개소로 49.5%이다.

전체 응답기관 중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응답한 기관은 172개소, 운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관이 300개소이다. 운영 공공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모두 303개였다. 프로그램 운영기관 중에서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현황표를 작성해 준 기관이 164개소이고, 이들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292개였다.

<표 3-8> 응답기관 기본 정보 사항

구분		빈도	퍼센트
기관 소재지	중구	47	10.0
	동구	29	6.1
	남구	71	15.0
	연수구	55	11.7
	남동구	73	15.5
	부평구	64	13.6
	계양구	43	9.0
	서구	66	14.0
	강화군	15	3.2
	옹진군	9	1.9
	계	472	100
기관 운영 유형	중앙행정기관	59	12.5
	지방자치단체	230	48.7
	정부공기업	2	0.4
	정부 출자출연기관	22	4.7
	지방공기업	29	6.1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14	3.0
	공공서비스 민간위탁기관	116	24.6
	계	472	100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부	운영 기관	172	36.4
	미운영 기관	300	63.6
	계	472	100
중앙 / 지방정부	중앙정부 기관	83	23.3
	지방정부 기관	273	76.7
	계	356	100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성격	교육·문화 관련 기관	93	50.5
	복지·상담 관련 기관	91	49.5
	계	184	100

2. 진로체험처(공공기관)에 대한 일반 설문 결과

여기서는 진로체험처인 공공기관에 대한 일반 설문 결과를 제시한다.

1) 진로체험에 대한 인식

공공기관의 진로체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와 진로체험의 영향력과 필요성,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진로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응답기관 472개소 중에서 2015년도에 진로교육법이 제정된 것을 알고 있는 기관이 43.6%이고, 절반 이상의 기관이 진로교육법 제정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진로교육법에 의거하여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기관도 48.9%로 모르고 있는 기관이 조금 더 많았다. 교육부의 진로체험 관련 규정이 고시된 것을 알고 있는 기관은 더 적었는데 이를 알고 있는 기관은 35.2%였고, 모르고 있는 기관이 64.8%였다. 교육부의 진로체험지원 사이트인 ‘꿈길’에 대해 알고 있는 기관이 39.6%였고 모르는 기관이 60.4%로 더 많으며, 꿈길 사이트에 진로체험처 정보 등록과 운영 실적 등록의 의무를 알고 있는 기관도 31.6%로 모르는 기관이 68.4%로 더 많았다. 요컨대, 인천 소재 공공기관들은 대체로 진로교육법의 제정에 대해서도 과반 이상이 잘 모르고 있지만, 교육부의 고시와 ‘꿈길’ 사이트에 대해서는 더 많은 기관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들이 학생들의 진로직업 탐색의 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하여 준비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9> 진로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문항	네	아니오	계
2015년에 「진로교육법」이 제정된 것을 알고 있다	206 (43.6)	266 (56.4)	472 (100)
「진로교육법」 제5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31 (48.9)	241 (51.1)	472 (100)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이 교육부에 의해 고시된 것을 알고 있다	166 (35.2)	306 (64.8)	472 (100)
교육부 진로체험지원 사이트 ‘꿈길’에 대해 알고 있다	187 (39.6)	285 (60.4)	472 (100)
교육부 진로체험지원 사이트 ‘꿈길’에 진로체험처로서 정보를 등록하고 진로체험 운영 실적을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149 (31.6)	323 (68.4)	472 (100)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184개 기관들의 성격별로 진로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문화 관련 기관들이 진로체험처로서의 정보와 운영실적을 등록해야 한다는 문항을 제외하면 대체로 진로체험 관련 정책에 대하여 50% 이상의 기관들이 알고 있는 반면에, 복지·상담 관련 기관들은 그에 대하여 과반 이상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의 고시가 제정된 것이나 ‘꿈길’ 사이트, 정보 및 운영 실적 등록 등에 대하여는 70% 이상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교육·문화 관련 기관들이 복지·상담 기관들보다 진로체험 정책에 관하여 조금 더 잘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0>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성격별 진로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구분	진로교육법 제정		진로체험 제공 의무		교육부 고시 제정		진로체험지원 사이트 ‘꿈길’		진로체험처 등록 및 운영		계
	네	아니오	네	아니오	네	아니오	네	아니오	네	아니오	
교육·문화	54 (58.1)	39 (41.9)	60 (64.5)	33 (35.5)	53 (57.0)	40 (43.0)	56 (60.2)	37 (39.8)	46 (49.5)	47 (50.5)	93 (100)
복지·상담	34 (37.4)	57 (62.6)	43 (47.3)	48 (52.7)	21 (23.1)	70 (76.9)	26 (28.6)	65 (71.4)	15 (16.5)	76 (83.5)	91 (100)
계	88 (47.8)	96 (52.2)	103 (56.0)	81 (44.0)	74 (40.2)	110 (59.8)	82 (44.6)	102 (55.4)	61 (33.2)	123 (66.8)	184 (100)
χ^2	7.900**		5.563*		22.001***		18.642***		22.572***		

*** $p < .001$, ** $p < .01$, * $p < .05$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들 사이에는 진로 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 중 60% 이상이 진로체험 관련 정책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기관들은 대개 관련 정책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교육부의 고시나 ‘꿈길’ 사이트, 정보 및 실적 등록 등에 대하여는 80% 이상의 기관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 중에서도 약 30% 정도는 관련 정책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중앙정부 관련 기관 일부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은 알지 못하였는데, 이미 관련 법령 제정 이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표 3-11>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구분	진로교육법 제정		진로체험 제공 의무		교육부 고시 제정		진로체험지원 사이트 ‘꿈길’		진로체험처 등록 및 운영		계
	네	아니오	네	아니오	네	아니오	네	아니오	네	아니오	
운영	113 (65.7)	59 (34.3)	129 (75.0)	43 (25.0)	106 (61.6)	66 (38.4)	134 (77.9)	38 (22.1)	116 (67.4)	56 (32.6)	172 (100)
미운영	93 (31.0)	207 (69.0)	102 (34.0)	198 (66.0)	60 (20.0)	240 (80.0)	53 (17.7)	247 (82.3)	33 (11.0)	267 (89.0)	300 (100)
계	206 (43.6)	266 (56.4)	231 (48.9)	241 (51.1)	166 (35.2)	306 (64.8)	187 (39.6)	285 (60.4)	149 (31.6)	323 (68.4)	472 (100)
χ^2	53.511***		73.541***		83.087***		165.836***		161.215***		

*** $p < .001$

□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영향력과 필요성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약 92%)은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직업이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고, 87.9%의 기관들은 현장을 방문하는 진로체험이 진로교육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유한구 외(2015)의 전국 단위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효과

와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공공기관들이 공감하고 있으므로 추후 공공기관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 제공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표 3-12> 진로체험의 영향력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직업이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7 (1.5)	31 (6.6)	261 (55.2)	173 (36.7)	472 (100)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교육에서 현장을 방문 해서 진행하는 진로체험 활동은 중요하므로 꼭 필요하다	4 (0.8)	53 (11.3)	234 (49.8)	179 (38.1)	47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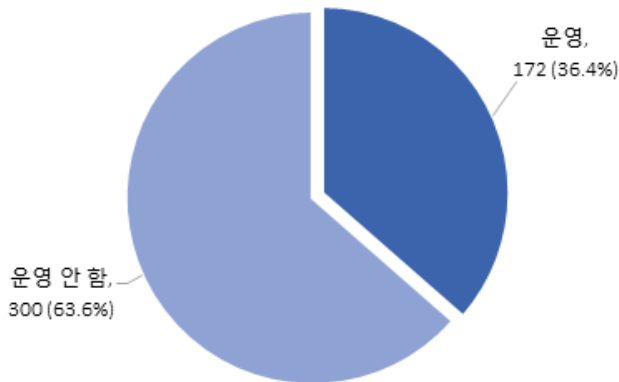
주관식으로 응답하게 한 진로체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유사한 내용끼리 범주화하여 살펴보았다. 필요한 이유로 ‘교실에서 혹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보다 직접적인 체험이 중요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래의 진로결정이나 직업선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9.2%로 많았다. 이를 통해 현장 진로체험의 중요성과 필요성, 효과에 대하여 공공기관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3> 진로체험 활동이 필요한 이유

이유	빈도	퍼센트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20	32.4
미래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108	29.2
해당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61	16.5
다양한 직업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32	8.7
학생들의 적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29	7.8
직업관(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18	4.9
기타	2	0.5
계	370	100

2)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부

2016년도를 기준으로 공공기관들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운영한 기관이 36.4%이고, 하지 않은 기관이 63.6%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전국 단위 조사이긴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산하 기관을 제외하고 조사한 유한구 외(2015)의 조사 결과와는 상반되는데, 본 조사는 기초자치단체 산하 기관까지 모두 포함하여 조사하였기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초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활발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1>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관유형별로는 정부와 지방의 출자출연기관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정부공기업,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과 민간위탁기관들은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 더 많다. 중앙정부 기관이 지방정부 기관보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더 많고, 교육·문화 관련 기관이 복지·상담 관련 기관보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부 변인별 비교

구분		운영	미운영	계	χ^2
기관 운영 유형	중앙행정기관	28 (47.5)	31 (52.5)	59 (100)	-
	지방자치단체	72 (31.3)	158 (68.7)	230 (100)	
	정부공기업	0 (0.0)	2 (100.0)	2 (100)	
	정부 출자출연기관	14 (63.6)	8 (36.4)	22 (100)	
	지방공기업	17 (58.6)	12 (41.4)	29 (100)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8 (57.1)	6 (42.9)	14 (100)	
	공공서비스 민간위탁기관	33 (28.4)	83 (71.6)	116 (100)	
	계	172 (36.4)	300 (63.6)	472 (100)	
중앙/ 지방정부	중앙정부 기관	42 (50.6)	41 (49.4)	83 (100)	6.075 *
	지방정부 기관	97 (35.5)	176 (64.5)	273 (100)	
	계	139 (39.0)	217 (61.0)	356 (100)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성격	교육·문화	53 (57.0)	40 (43.0)	93 (100)	23.557 ***
	복지·상담	20 (22.0)	71 (78.0)	91 (100)	
	계	73 (39.7)	111 (60.3)	184 (100)	

*** $p < .001$, * $p < .05$

3)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기본 현황과 지원 요구

2016년 기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 기본 운영 현황과 운영 프로그램 개수, 학교와의 연계 방법, 개선 필요 항목, 지원 요구, 향후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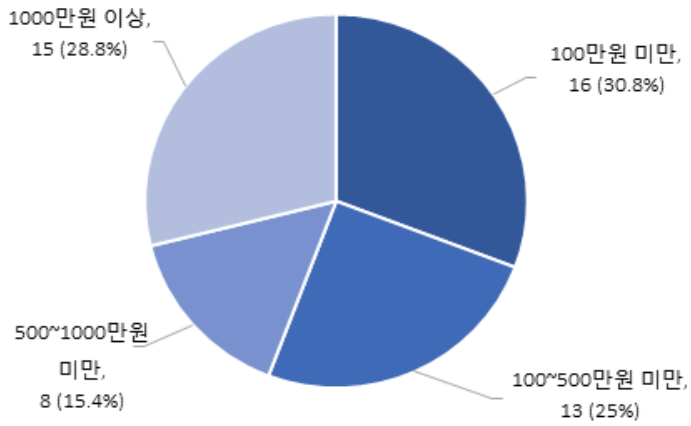
□ 진로체험 프로그램 기본 운영 현황

2016년도 기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관들 중 진로체험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기관이 77.1%로 많은 반면에, 진로체험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기관은 43.8%로 적으며, 진로체험을 전담하는 상시인력이 있는 기관은 67.6%이다. 기관의 성격에 맞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기관은 92.4%로 대부분의 기관들이 기관의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온라인정보시스템인 '꿈길'에 등록된 기관은 65.9% 정도에 불과하였다.

<표 3-15>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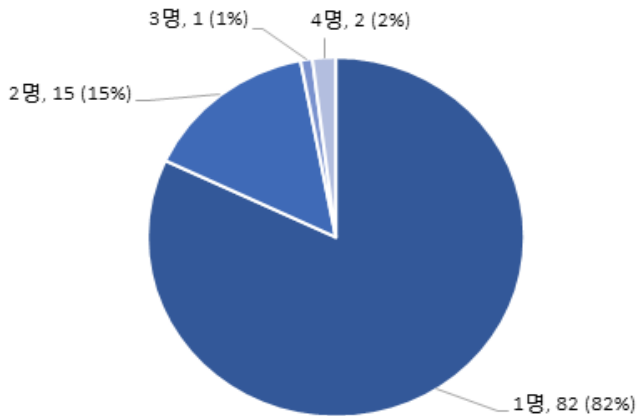
문항	네	아니오	계
진로체험 연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31 (77.1)	39 (22.9)	170 (100)
진로체험을 위한 배정 예산이 있다	74 (43.8)	95 (56.2)	169 (100)
진로체험을 전담하는 상시인력(정규, 비정규)이 있다	115 (67.6)	55 (32.4)	170 (100)
기관의 성격에 맞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158 (92.4)	13 (7.6)	171 (100)
진로체험 관련 온라인정보시스템(꿈길)에 등록하였다	112 (65.9)	58 (34.1)	170 (100)

2016년도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배정한 74개 기관들 중 응답한 52개 기관 중에서 연간 100만원 미만의 예산을 배정하는 기관이 16개(30.8%)이고, 100만원~500만원 미만의 예산을 배정하는 기관이 13개(25%), 500만원~1000만원 미만의 예산을 배정하는 기관이 8개(15.4%)이며,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하는 기관도 15개(28.8%)나 되었다. 5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하는 기관들은 주로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지원을 핵심 업무로 수행하는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인천평생학습관, 교육청 소속 도서관, 학생교육문화회관 등 청소년 관련 시설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100만원 미만의 예산을 배정하는 기관은 주로 지방정부 관련 기관들이다.



<그림 3-2>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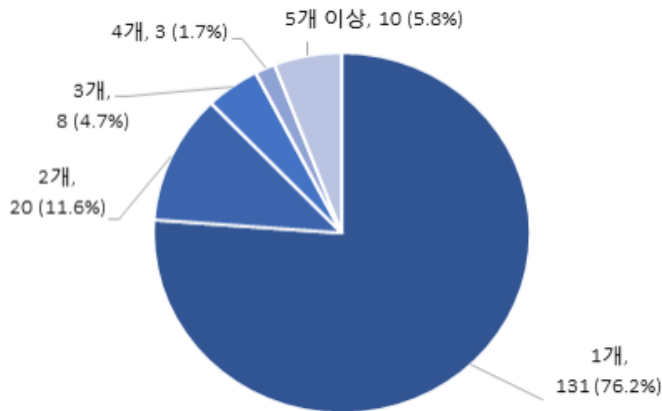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1명의 인력을 두는 기관이 대부분으로 82개(82%)이며,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인천평생학습관처럼 2명 이상을 두는 기관들도 일부 있었다.



<그림 3-3>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인력 현황

□ 운영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수

2016년도 기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 중 응답한 172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개수는 총 303개이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1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대부분으로 76.2%이고, 2개를 운영하는 기관이 20개소로 11.6%이며, 5개 이상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10개소(5.8%)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을 5개 이상 운영하는 기관들은 대개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인천평생학습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기관별 2016년도 운영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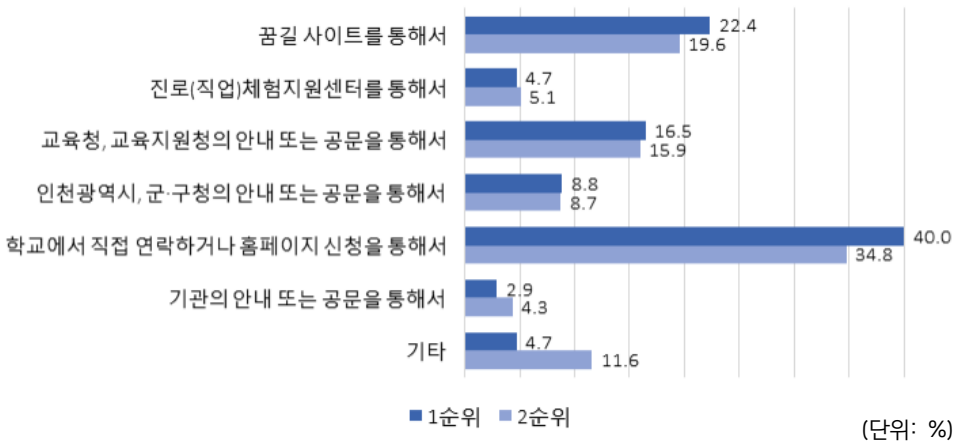
진로체험 예산 배정 여부에 따른 프로그램 개수를 살펴보면,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기관들은 운영 프로그램 개수가 대개 1개인데, 이는 곧 예산 없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해 준다.

<표 3-16> 기관별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수에 대한 변인별 비교

구분		1개	2개	3개	4개	5개이상	계
진로체험 예산 배정	네	46 (62.2)	10 (13.5)	7 (9.5)	2 (2.7)	9 (12.1)	74 (100)
	아니오	82 (86.3)	10 (10.4)	1 (1.1)	1 (1.1)	1 (1.1)	95 (100)
	계	128 (75.8)	20 (11.8)	8 (4.7)	3 (1.8)	10 (5.9)	169 (100)

□ 학교와의 연계 방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연계하는 방법을 순위별로 알아본 결과 1순위와 2순위의 응답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결국 학교에서 직접 연락하거나 기관 홈페이지의 신청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꿈길 사이트를 통해서, 다음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안내 또는 공문을 통해서였다.



<그림 3-5> 학교와의 연계 방법(1순위, 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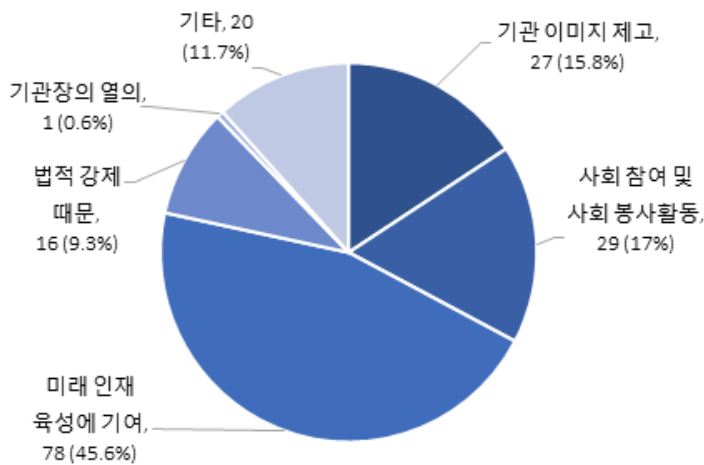
꿈길 사이트를 통한 연계가 조금 낮은 이유는 활용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면담조사하였던 A 도서관 담당자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꿈길 사이트도 활용이 잘 되지 않았어요. 이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꿈길에 올려둬도 신청이 안 들어와요.

□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유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응답한 171개 기관 중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78개소 (45.6%)로 가장 많고, ‘사회참여 및 봉사 때문’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29개소 (17%), ‘기관의 이미지 제고 때문’이 27개소(15.8%)로 나타났다. ‘법적 강제 때문’이라고 응답한 기관은 16개소(9.3%)이다. 기타 제공 이유를 살펴보면, 관련 부서

나 교육부의 협조 요청, 자체적인 진로지도 및 진로인식 개선, 기관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이었으며, 단 1곳이 행정평가 실적 반영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공익적이고 긍정적인 목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인 D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으로서 이런 분야의 교육의 필요성과 사회적 책무에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 D 금융기관은 기관장의 열의까지 더해져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6>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유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유에서 ‘기관의 이미지 제고’는 중앙정부 기관과 진로체험 운영 예산이 없는 기관들에게서 상대적으로 중요시 되었고,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은 진로체험 지원 계획이 없는 기관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유 변인별 비교

구분		기관 이미지 제고	사회 참여 및 봉사활동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	법적강제 때문	기관장의 열의	기타	계
중앙/ 지방정부	중앙 기관	12 (28.6)	5 (11.9)	15 (35.7)	2 (4.8)	0 (0.0)	8 (19.0)	42 (100)
	지방 기관	12 (12.5)	17 (17.7)	47 (49.0)	12 (12.5)	1 (1.0)	7 (7.3)	96 (100)
	계	24 (17.4)	22 (15.9)	62 (44.9)	14 (10.2)	1 (0.7)	15 (10.9)	138 (100)
진로체험 자원 계획 수립	네	17 (13.0)	17 (13.0)	67 (51.0)	9 (6.9)	1 (0.8)	20 (15.3)	131 (100)
	아니오	10 (26.3)	11 (29.0)	10 (26.3)	7 (18.4)	0 (0.0)	0 (0.0)	38 (100)
	계	27 (16.0)	28 (16.6)	77 (45.5)	16 (9.5)	1 (0.6)	20 (11.8)	169 (100)
진로체험 예산 배정	네	5 (6.8)	8 (10.8)	46 (62.2)	2 (2.7)	1 (1.3)	12 (16.2)	74 (100)
	아니오	21 (22.3)	20 (21.3)	31 (33.0)	14 (14.9)	0 (0.0)	8 (8.5)	94 (100)
	계	26 (15.5)	28 (16.7)	77 (45.8)	16 (9.5)	1 (0.6)	20 (11.9)	168 (100)

□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개선 필요 항목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시 개선해야 할 항목들 각각에 대한 개선 필요 정도를 5점 척도로 알아본 결과, 모든 항목이 3점 이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예산 확대 > 기관이나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외부 연계기관의 도움 >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순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개선 항목의 필요 정도(5점 척도)

	빈도	평균	표준편차
기관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업그레이드	170	3.40	1.133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170	3.53	1.142
외부 강사 확보 및 보조 인력 지원	170	3.33	1.304
운영 관련 예산 확대	170	3.57	1.263
학교 등 이해관계자와의 호의적 관계 형성 및 유지	170	3.47	1.152
기관 실무자의 진로체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전문성 확보	169	3.50	1.135
학생들의 안전수칙과 안전대책 마련	169	3.21	1.253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혹은 기관의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170	3.55	1.187
외부 연계기관의 도움	169	3.54	1.239

위 개선 필요 항목에 대하여 변인별 비교 분석을 한 결과, 몇 가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관 실무자의 진로체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전문성 확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하여 중앙정부 기관보다 지방정부 기관이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곧 지방기관의 진로체험 담당자가 진로체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면에서나 전문성 면에서 부족함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19> 실무자의 공감대 및 전문성에 대한 개선 필요 정도 변인별 비교(5점 척도)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중앙/ 지방정부	중앙정부 기관	41	3.20	1.229	-2.089*
	지방정부 기관	95	3.66	1.126	

* $p < .05$

학생들의 안전수칙과 대책 마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하여 진로체험 예산을 배정한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예산을 배

정하는 기관이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아무래도 예산을 배정하는 기관 일수록 운영 프로그램의 개수와 운영 횟수가 많아 학생들이 자주 또는 많이 드나 들어 안전 문제가 더 대두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표 3-20> 학생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개선 필요 정도 변인별 비교(5점 척도)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진로체험 예산 배정	네	74	3.42	1.194	2.187*
	아니오	92	3.00	1.267	

* $p < .05$

진로체험 운영 기관이나 기관의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하여는 두 가지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진로체험 지원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기관, 진로체험 전담 인력이 없는 기관이 인센티브 제공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진로체험 지원 계획도 없고 인력도 없는 기관들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21> 운영 기관 인센티브에 대한 개선 필요 정도 변인별 비교(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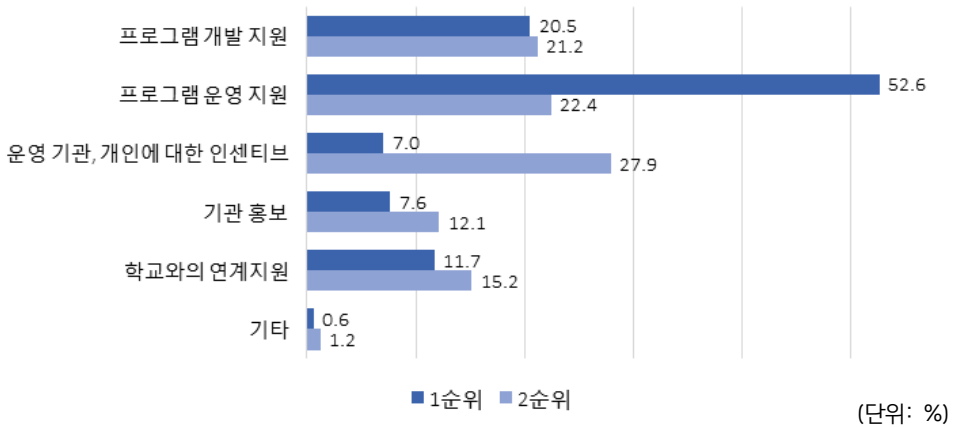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진로체험 지원 계획 수립	네	130	3.45	1.233	-2.292*
	아니오	38	3.89	0.981	
진로체험 전담 인력	네	114	3.41	1.261	-2.469*
	아니오	54	3.85	0.979	

* $p < .05$

□ 진로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구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알아본 결과, 1순위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었고, 2순위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운영기관이나 담당자에 대한 인

센티브로 나타나, 위 문항에서 개선 필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즉, 공공기관들은 진로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운영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주어야 하고, 운영 기관이나 담당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어야 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7>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요구(1순위, 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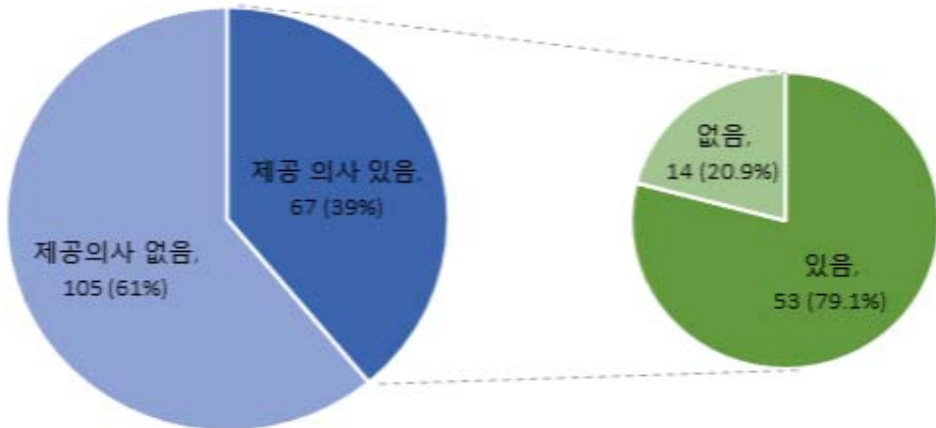
면담조사에서도 예산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실제로 예산 배정 없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A 도서관의 경우 유사한 다른 도서관들이 예산을 배정하여 잘 운영하자 아예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였다.

2011년인가부터 이미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어요. 프로그램명은 '직업군 특강'이라고 해서. 전문직 종사자를 초빙하여 직업 선택의 방향, 직업에 대한 설명이나 업무 설명을 하고, 직업수행 관련 에피소드 같은 것들, 뭐 후회하는 점 같은 거 강의를 했었죠. 처음엔 주변에 그런 특강이 없어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000 소속 도서관들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학교와 연계가 잘 되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 도서관이 해야 할 필요가 있나? 뭐 경쟁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거죠....시간 투자를 해야 하는 사업임에 비해 예산 편성이 없고 여기까지 아이들이 오는 것도 힘들어 해서 중단하게 된 거죠.

B 문화원의 경우에도 인근 교육지원청의 요청으로 예산지원을 받을 때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진로체험 주관자가 시교육청으로 바뀌면서 예산 배정 기관에서 제외되자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였다. 이처럼 예산 지원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 향후 새로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획

2016년에 제공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외에 신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관들이 39%(67개소)인데, 이들 중 2017년부터 실행할 수 있는 신규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기관이 79.1%(53개소)로 나타났다. 반면에 과반 이상의 기관들(61%)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 이외에 신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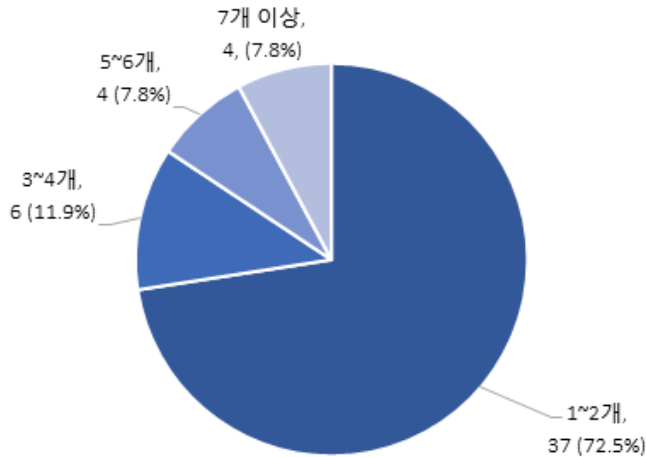
신규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의사 유무

실행가능한 신규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무

<그림 3-8> 진로체험 운영기관의 향후 새로운 진로체험 운영 계획

2017년도부터 실행가능한 새로운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는 53개 기관들 중에서 제공할 프로그램의 개수를 알아본 결과, 37개소(72.5%)가 1~2개의 신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고, 6개소(11.9%)가 3~4개의 신규 프로그램을, 4

개소(7.8%)는 5~6개, 나머지 4개소(7.8%)는 7개 이상의 신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주로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신규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하였고, 이외에도 고용센터 등에서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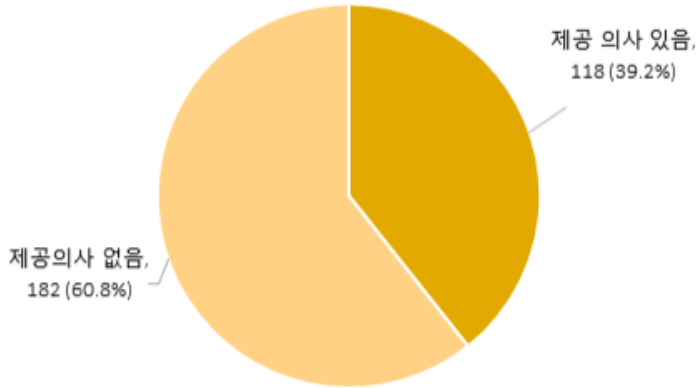
<그림 3-9> 2017년도 제공 예정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수

4) 진로체험 프로그램 미운영기관의 향후 운영 전망

2016년 기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향후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의사 유무를 알아보았다.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는 지금까지 제공하지 못한 이유와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요구 등을 알아보았고, 향후에도 제공할 의사가 없는 기관에게는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 향후 진로체험 제공의사 유무

2016년 기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들(300개소)에게 향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기관이 39.2%이고, 제공할 의사가 없다는 기관이 60.8%로 나타나, 과반 이상의 기관들이 향후로도 계속 제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0> 미운영기관의 향후 진로체험 제공의사 유무

중앙정부 기관들은 향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관이 조금 더 많은 반면에, 지방정부 기관들은 향후에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사가 없는 기관이 더 많았다. 이런 지방기관들은 주로 규모가 작은 주민자치센터(읍·면 사무소 포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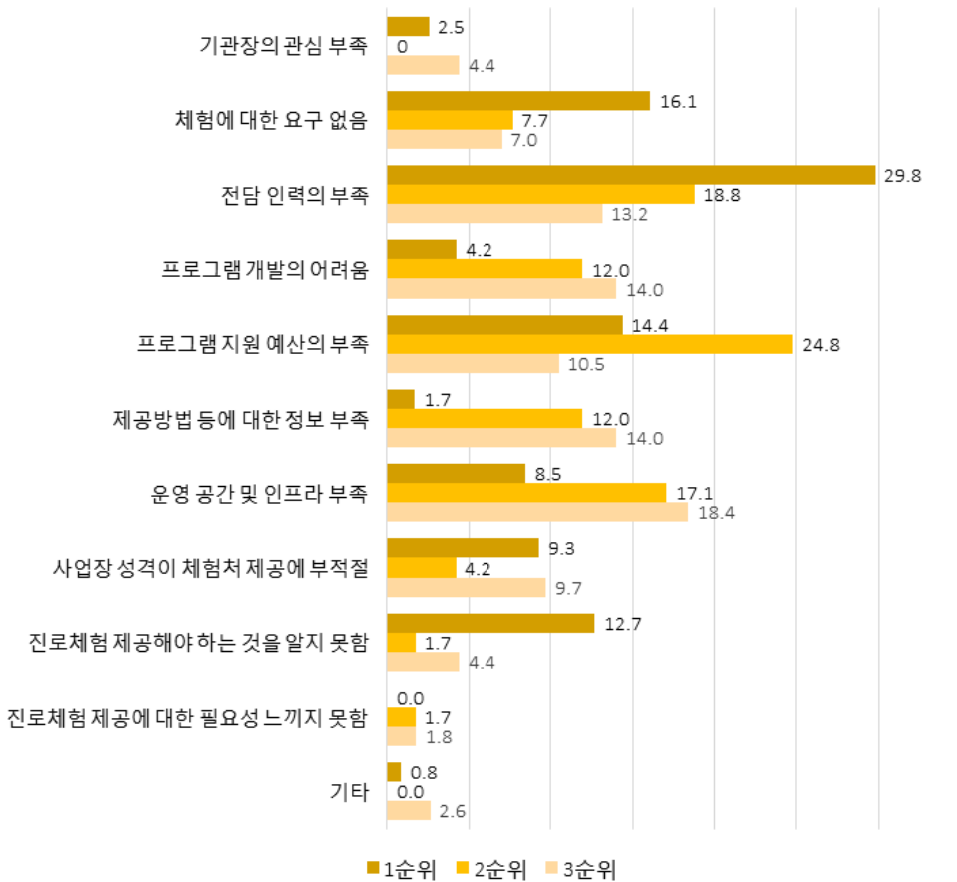
<표 3-22> 미운영기관의 향후 진로체험 제공의사 유무 변인별 비교

구분		제공 의사 있음	제공 의사 없음	계	χ^2
중앙/ 지방정부	중앙정부 기관	21 (51.2)	20 (48.8)	41 (100)	3.879 *
	지방정부 기관	61 (34.7)	115 (65.3)	176 (100)	
	계	82 (37.8)	135 (62.2)	217 (100)	

* $p < .05$

□ 향후 진로체험 제공의사가 있는 기관들의 제공하지 못한 이유와 필요한 지원 요구

향후에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기관들(118개소)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이유를 알아본 결과, 전담 인력의 부족(29.8%)을 1순위로 꼽았고, 프로그램 지원 예산의 부족(24.8%), 운영 공간 및 인프라 부족(18.4%)을 각각 2, 3순위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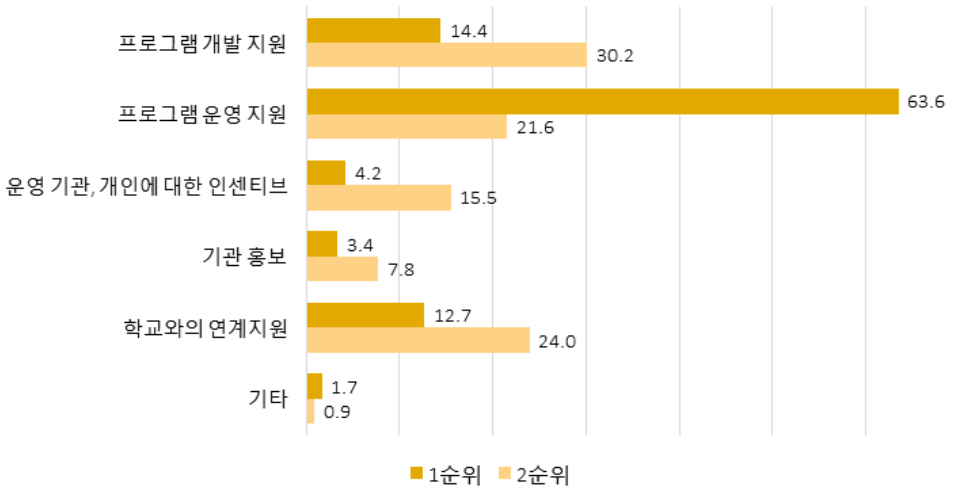


(단위: %)

<그림 3-11> 지금까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이유(1,2,3순위)

이 기관들에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1순위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

의 지원(63.6%)을, 2순위로 프로그램 개발 지원(30.2%)을 들었다. 전국 단위 조사를 했던 유한구 외(2015)에서도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은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 지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한구 외(2015: 43)가 지적했듯이, 공공기관이 교육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예산이나 인력 운용 또한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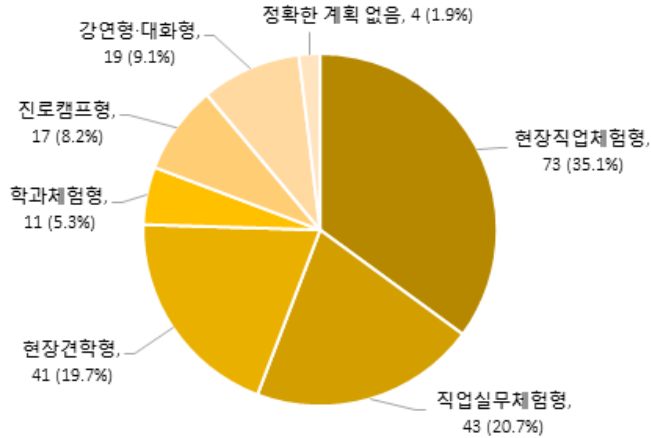


(단위: %)

<그림 3-12>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요구(1순위, 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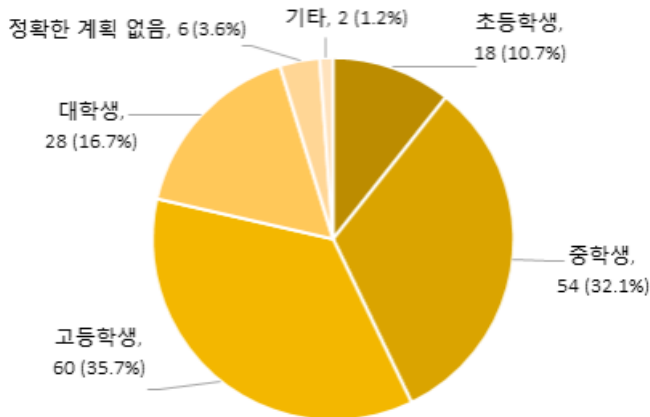
□ 향후 제공하고 싶은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유형과 대상

향후에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기관들(118개소)을 대상으로 향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현장직업체험형 > 직업실무체험형 > 현장견학형 > 강연·대화형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아니면 진로캠프형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특성화고나 대학이 아니면 학과체험형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주로 직업현장이나 모의일터에서의 현장체험 혹은 견학 등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3> 향후 제공할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유형(중복응답)

또, 향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싶은지 중복응답으로 알아본 결과, 공공기관들은 고등학생(35.7%)과 중학생(32.1%)을 가장 선호하였고, 세 번째가 대학생(16.7%)이고 초등학생은 10.7%에 불과하였다. 직업기관을 방문하여 체험하기에 초등학생은 어린 편이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어려워 직업현장에서는 이들을 선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 기관이 지방정부 기관보다 고등학생에 대한 선호도가 높는데, 중앙정부 관련 D 금융기관에서도 중학생까지 접수받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중학생들에게도 쉬운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림 3-14> 향후 제공할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대상(중복응답)

<표 3-23> 향후 제공할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대상 변인별 비교(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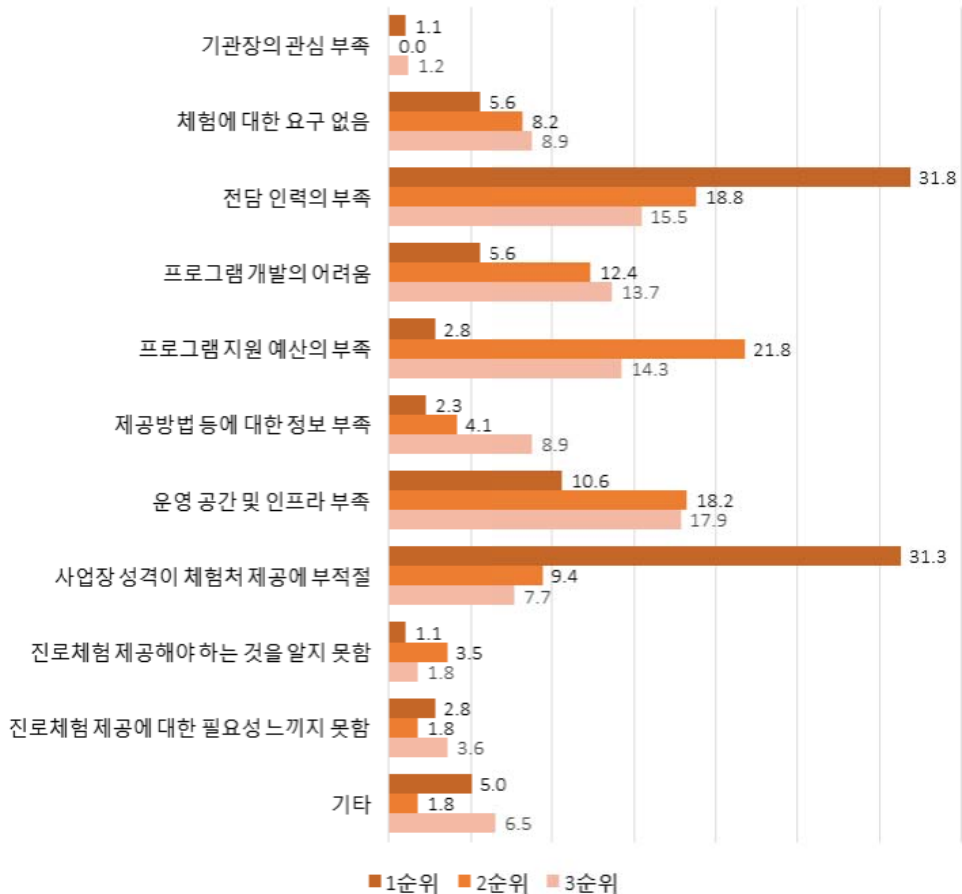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정확한 계획없음	기타	계
기관 운영 유형	중앙 행정기관	3 (14.3)	5 (23.8)	9 (42.9)	4 (19.0)	0 (0.0)	0 (0.0)	21 (100)
	지방 자치단체	7 (9.6)	26 (35.6)	28 (38.4)	8 (11.0)	2 (2.7)	2 (2.7)	73 (100)
	정부 공기업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1 (100)
	정부 출자출연 기관	0 (0.0)	2 (33.3)	3 (50.0)	1 (16.7)	0 (0.0)	0 (0.0)	6 (100)
	지방 공기업	1 (14.3)	2 (28.55)	1 (14.3)	2 (28.55)	1 (14.3)	0 (0.0)	7 (100)
	지방정부 출자출연 기관	0 (0.0)	0 (0.0)	0 (0.0)	2 (100.0)	0 (0.0)	0 (0.0)	2 (100)
	민간 위탁기관	7 (12.1)	19 (32.8)	19 (32.8)	11 (18.9)	2 (3.4)	0 (0.0)	58 (100)
	계	18 (10.7)	54 (32.1)	60 (35.7)	28 (16.7)	6 (3.6)	2 (1.2)	168 (100)
중앙 /지방 정부	중앙정부 기관	3 (10.7)	7 (25.0)	12 (42.9)	5 (17.8)	1 (3.6)	0 (0.0)	28 (100)
	지방정부 기관	8 (9.8)	28 (34.1)	29 (35.4)	12 (14.6)	3 (3.7)	2 (2.4)	82 (100)
	계	11 (10.0)	35 (31.8)	41 (37.3)	17 (15.5)	4 (3.6)	2 (1.8)	110 (100)
공공 서비스 제공 기관 성격	교육·문화	4 (11.8)	12 (35.3)	13 (38.2)	5 (14.7)	0 (0.0)	0 (0.0)	34 (100)
	복지·상담	5 (13.5)	13 (35.1)	11 (29.7)	6 (16.2)	2 (5.4)	0 (0.0)	37 (100)
	계	9 (12.7)	25 (35.2)	24 (33.8)	11 (15.5)	2 (2.8)	0 (0.0)	71 (100)

주: 퍼센트 및 합계는 중복응답자수를 기준으로 함

□ 향후 진로체험 제공의사 없는 기관들의 그 이유

2016년 기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기관들(300개소) 중 향후에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사가 없다는 기관들(182개소)에게 그 이유

를 알아본 결과, 1순위로 전담 인력의 부족(31.8%)과 사업장 성격이 체험처 제공에 부적절함(31.3%)을, 2순위로 프로그램 지원 예산의 부족(21.8%)을, 3순위로 운영 공간 및 인프라 부족(17.9%)을 꼽았다. 인력과 예산, 공간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부 기관들에게는 진로체험을 제공하기에 적절한 사업장의 성격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단위: %)

<그림 3-15>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의사가 없는 이유(1,2,3순위)

3. 2016년 운영 진로체험 프로그램 설문 결과

여기서는 2016년도에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관들 중 프로그램 현황표를 작성해 준 164개 기관의 292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 기관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16년도에 공공기관들이 운영한 292개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이 144개로 가장 많으며, 공공서비스 민간위탁기관이 66개, 중앙행정기관이 33개를 운영하였다. 운영 프로그램의 약 80%를 지방정부 기관이 진행하였고, 공공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제공한 172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교육·문화 관련 기관이 약 86%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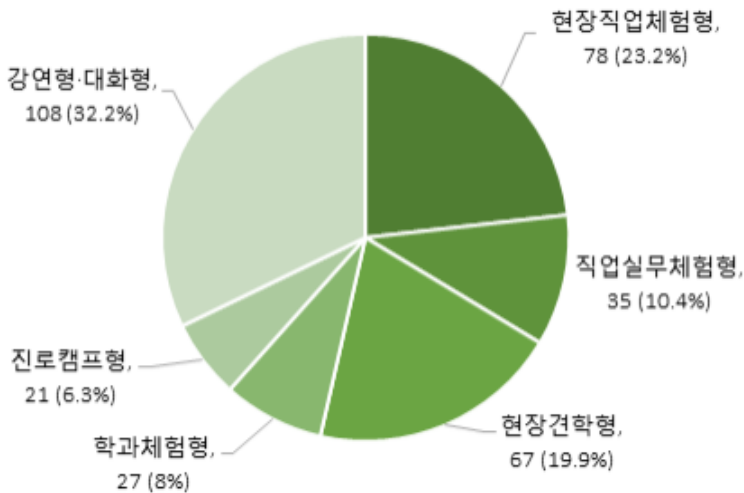
<표 3-24> 2016년도 운영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수

(단위: 개)

구분		프로그램 수	퍼센트
기관 운영 유형	중앙행정기관	33	11.3
	지방자치단체	144	49.3
	정부 출자출연기관	15	5.2
	지방공기업	26	8.9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8	2.7
	공공서비스 민간위탁기관	66	22.6
	계	292	100
중앙/ 지방정부	중앙정부 기관	48	21.2
	지방정부 기관	178	78.8
	계	226	100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성격	교육·문화	148	86.0
	복지·상담	24	14.0
	계	172	100

□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형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관들이 실제 운영했던 프로그램의 유형에 대하여 중복응답으로 알아본 결과, 강연·대화형이 32.2%로 가장 많았고, 현장직업체험형이 23.2%, 현장견학형이 19.9%, 직업실무체험형이 10.4%였다. 서울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해숙 외(2016: 87)에서도 강연·대화형이 가장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실제 프로그램 운영 시 강연·대화형이 가장 선호되는 유형이면서 다른 유형과 혼합하여서도 필수적으로 운영되는 유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3-16>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형(중복응답)

전체적으로는 강연·대화형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많고, 다음이 현장직업체험형이다. 현장견학형은 중앙정부 기관에게서, 현장직업체험형은 지방정부 기관 그리고 교육·문화 기관에게서 비교적 많이 선호되고 있다. 직업실무체험형은 복지·상담 기관에게서 비교적 많이 선호되고 있다. 향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기관들이 강연·대화형보다는 현장직업체험형이나 직업실무체험형에 대한 선호도를 높게 나타낸 것과 다르게,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은 오히려 강연·대화형을 많이 실행하고 있다. 그것은 실제로는 체험형보다 강연·대화형을 운영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며, 또 특정 하나의 유형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복합적으로 적용할 때 체험형과 더불어 강연·대화형을 함께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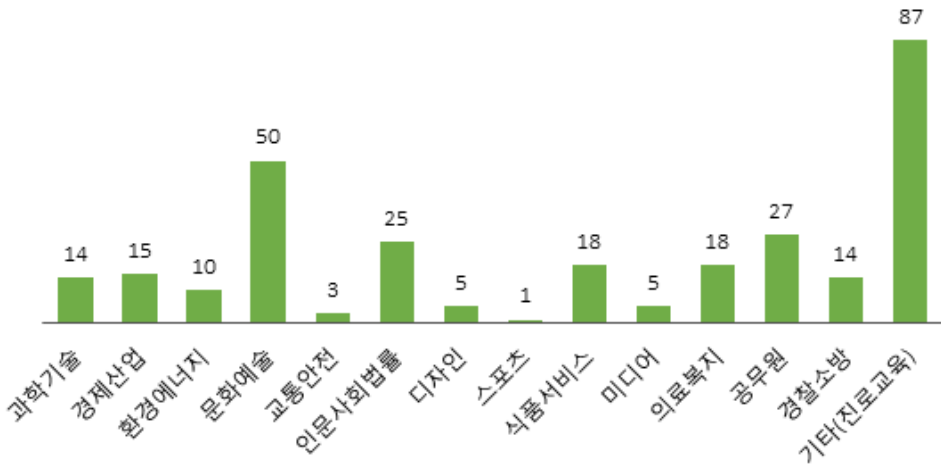
<표 3-25>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형 변인별 비교(중복응답)

구분		현장직업 체험형	직업실무 체험형	현장 견학형	학과 체험형	진로 캠프형	강연형· 대화형	계
기관 유형	중앙 행정기관	13 (31.0)	2 (4.8)	9 (21.3)	3 (7.1)	2 (4.8)	13 (31.0)	42 (100)
	지방 자치단체	41 (26.1)	10 (6.4)	25 (15.9)	8 (5.1)	6 (3.8)	67 (42.7)	157 (100)
	정부 출자출연 기관	2 (10.0)	2 (10.0)	8 (40.0)	0 (0.0)	1 (5.0)	7 (35.0)	20 (100)
	지방 공기업	2 (6.7)	5 (16.7)	7 (23.3)	4 (13.3)	5 (16.7)	7 (23.3)	30 (100)
	지방정부 출자출연 기관	2 (20.0)	1 (10.0)	5 (50.0)	0 (0.0)	0 (0.0)	2 (20.0)	10 (100)
	민간 위탁기관	18 (23.4)	15 (19.5)	13 (16.8)	12 (15.6)	7 (9.1)	12 (15.6)	77 (100)
	계	78 (23.2)	35 (10.4)	67 (19.9)	27 (8.0)	21 (6.3)	108 (32.2)	336 (100)
중앙 /지방 정부	중앙정부 기관	15 (24.2)	4 (6.5)	17 (27.4)	3 (4.8)	3 (4.8)	20 (32.3)	62 (100)
	지방정부 기관	45 (22.8)	16 (8.1)	37 (18.8)	12 (6.1)	11 (5.6)	76 (38.6)	197 (100)
	계	60 (23.2)	20 (7.7)	54 (20.8)	15 (5.8)	14 (5.4)	96 (37.1)	259 (100)
공공 서비스 제공 기관 성격	교육·문화	37 (22.4)	20 (12.1)	21 (12.7)	17 (10.3)	12 (7.3)	58 (35.2)	165 (100)
	복지·상담	5 (17.9)	8 (28.6)	5 (17.9)	1 (3.6)	3 (10.7)	6 (21.3)	28 (100)
	계	42 (21.8)	28 (14.5)	26 (13.5)	18 (9.3)	15 (7.8)	64 (33.1)	193 (100)

주: 퍼센트 및 합계는 중복응답수를 기준으로 함

□ 진로체험 프로그램 체험영역

공공기관들이 운영했던 292개 프로그램의 체험영역을 알아본 결과, 종합적인 진로교육 분야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문화예술 분야, 공무원 분야, 인문사회법률 분야가 많고, 스포츠나 교통안전, 미디어 분야는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적인 진로교육은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다.



(단위: 개)

<그림 3-17>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체험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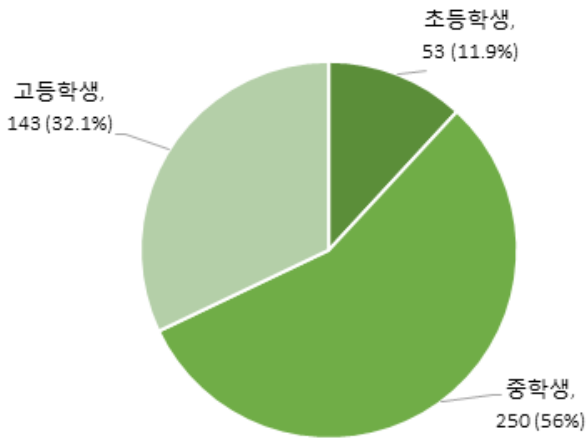
문화예술과 공무원 분야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지방기관에게서 두드러지게 많이 실행되고 있다.

<표 3-26> 중앙/지방 정부 기관별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체험영역

구분	과학기술	경제산업	환경에너지	문화예술	교통안전	인문사회법률	디자인	스포츠	식품서비스	미디어	의료복지	공무원	경찰소방	기타	계
중앙정부 기관	10 (20.8)	7 (14.6)	3 (6.2)	1 (2.1)	0 (0.0)	7 (14.6)	0 (0.0)	0 (0.0)	0 (0.0)	0 (0.0)	5 (10.4)	2 (4.2)	7 (14.6)	6 (12.5)	48 (100)
지방정부 기관	3 (1.7)	7 (3.9)	7 (3.9)	43 (24.2)	2 (1.1)	17 (9.6)	4 (2.3)	1 (0.6)	7 (3.9)	4 (2.3)	7 (3.9)	23 (12.9)	7 (3.9)	46 (25.8)	178 (100)
계	13 (5.7)	14 (6.2)	10 (4.4)	44 (19.5)	2 (0.9)	24 (10.6)	4 (1.8)	1 (0.4)	7 (3.1)	4 (1.8)	12 (5.3)	25 (11.1)	14 (6.2)	52 (23.0)	226 (100)

□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상에 대하여 중복응답으로 알아본 결과, 중학생이 56%로 가장 많고, 고등학생이 32.1%, 초등학생이 11.9%였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다음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들이 선호하는 진로체험 대상은 고등학생이지만, 실제로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중학생들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서울 지역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숙 외, 2016: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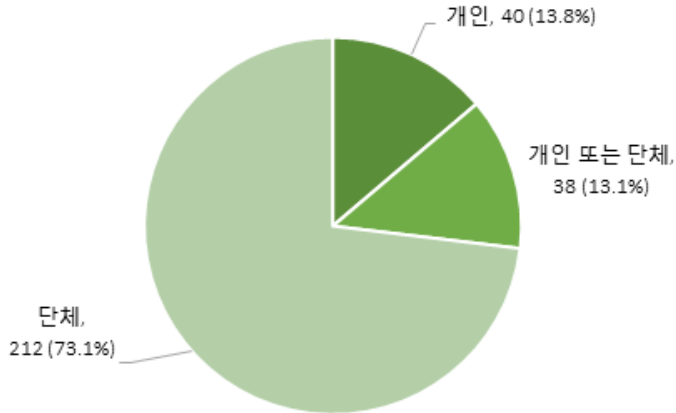


<그림 3-18>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대상(중복응답)

□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방법

공공기관들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주로 단체(73.1%)로 신청 받아 운영하였고, 13.8%는 개인으로 신청 받아 운영하였다. 개인 참여와 단체 참여가 모두 허용되는 공공기관도 13.1%나 되었다. 중앙기관과 달리, 지방기관들 중에는 개인 참여로 신청 받는 기관들도 있는데,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교육지원청 등에서 운영하는 일부 프로그램이 그러하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주로 인천시청소년수련관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기관의 프로그램들이 개인 참여로 운영하고 있었다. 학교 단위 단체 참여가 가장 많은 것은 서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이혜숙

외, 2016: 88). 이는 진로체험이 학교에서 시행하는 진로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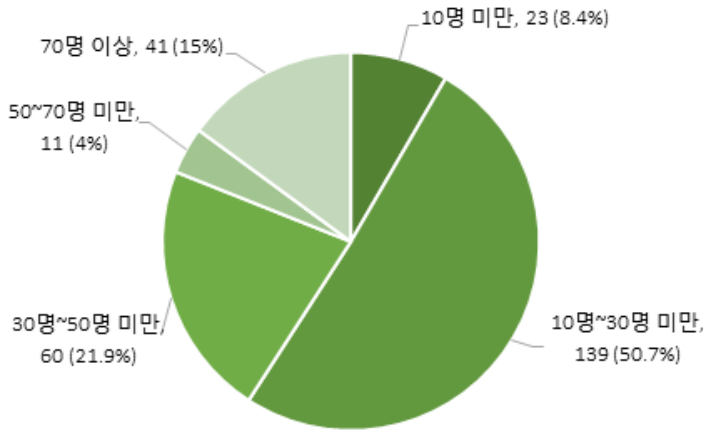
<그림 3-19>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방법

<표 3-27>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방법 변인별 비교

구분		개인	개인 또는 단체	단체	계
기관 운영 유형	중앙행정기관	0 (0.0)	3 (9.7)	28 (90.3)	31 (100)
	지방자치단체	27 (18.8)	15 (10.4)	102 (70.8)	144 (100)
	정부 출자출연기관	0 (0.0)	1 (6.7)	14 (93.3)	15 (100)
	지방 공기업	4 (15.4)	3 (11.5)	19 (73.1)	26 (100)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0 (0.0)	0 (0.0)	8 (100.0)	8 (100)
	공공서비스 민간위탁기관	9 (13.7)	16 (24.2)	41 (62.1)	66 (100)
	계	40 (13.8)	38 (13.1)	212 (73.1)	290 (100)
	중앙/지방 정부	중앙정부 기관	0 (0.0)	4 (8.7)	42 (91.3)
지방정부 기관		31 (17.4)	18 (10.1)	129 (72.5)	178 (100)
계		31 (13.9)	22 (9.8)	171 (76.3)	224 (100)

□ 진로체험 프로그램 회당 이용 인원

공공기관들이 운영했던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회당 이용인원은 평균 10명~30명 미만이 50.7%로 가장 많고, 30명~50명 미만도 21.9%나 되었다. 평균 70명 이상 규모로 운영하는 기관도 15%나 되었는데. 반면에 10명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하는 기관도 8.4% 정도 있었다.



<그림 3-20>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회당 이용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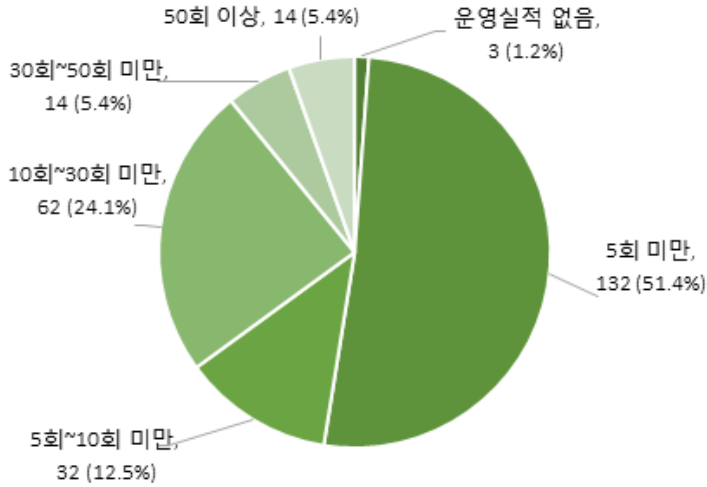
50명 이상의 대규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은 주로 청소년수련관이나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문화예술회관 같은 청소년 및 문화예술 시설로서 교육·문화 관련 기관인 경우가 많다.

<표 3-28>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회당 이용인원 변인별 비교

구분		10명 미만	10명 ~30명 미만	30명 ~50명 미만	50명 ~70명 미만	70명 이상	계
기관 운영 유형	중앙행정기관	0 (0.0)	19 (57.6)	8 (24.2)	2 (6.1)	4 (12.1)	33 (100)
	지방자치단체	11 (7.9)	65 (46.8)	35 (25.2)	5 (3.6)	23 (16.5)	139 (100)
	정부 출자출연기관	1 (7.1)	6 (42.9)	6 (42.9)	0 (0.0)	1 (7.1)	14 (100)
	지방 공기업	1 (4.2)	10 (41.6)	6 (25.0)	1 (4.2)	6 (25.0)	24 (100)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1 (12.5)	2 (25.0)	2 (25.0)	2 (25.0)	1 (12.5)	8 (100)
	공공서비스 민간위탁기관	9 (16.1)	37 (66.1)	3 (5.3)	1 (1.8)	6 (10.7)	56 (100)
	계	23 (8.4)	139 (50.7)	60 (21.9)	11 (4.0)	41 (15.0)	274 (100)
공공 서비스 제공 기관 성격	교육·문화	9 (6.7)	70 (51.8)	27 (20.0)	5 (3.7)	24 (17.8)	135 (100)
	복지·상담	7 (29.1)	15 (62.5)	1 (4.2)	0 (0.0)	1 (4.2)	24 (100)
	계	16 (10.1)	85 (53.5)	28 (17.6)	5 (3.1)	25 (15.7)	159 (100)

□ 진로체험 프로그램 연간 운영횟수

공공기관들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연간 운영횟수를 조사한 결과, 연간 5회 미만이 51.4%로 가장 많고, 10회~30회 미만이 24.1%, 5회~10회 미만이 12.5%로 나타났다. 30회 이상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주로 국립생물자원관, 인천기상대, 인천지방검찰청, 경찰서, 지방법원 등 중앙기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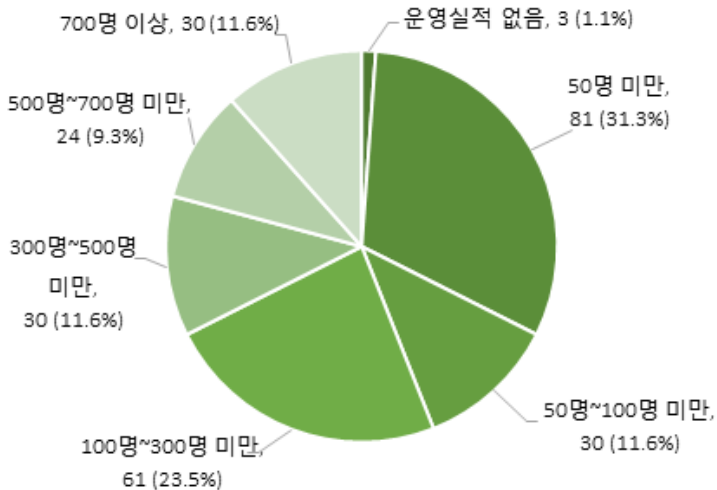
<그림 3-21>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연간 운영횟수

<표 3-29>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연간 운영횟수 변인별 비교

구분		운영 실적 없음	5회 미만	5회 ~10회 미만	10회 ~30회 미만	30회 ~50회 미만	50회 이상	계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0 (0.0)	12 (40.0)	5 (16.7)	4 (13.3)	3 (10.0)	6 (20.0)	30 (100)
	지방자치단체	1 (0.8)	69 (55.2)	11 (8.8)	39 (31.2)	3 (2.4)	2 (1.6)	125 (100)
	정부 출자출연기관	0 (0.0)	10 (71.4)	0 (0.0)	2 (14.3)	2 (14.3)	0 (0.0)	14 (100)
	지방 공기업	1 (4.0)	14 (56.0)	4 (16.0)	3 (12.0)	2 (8.0)	1 (4.0)	25 (100)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0 (0.0)	7 (87.5)	0 (0.0)	1 (12.5)	0 (0.0)	0 (0.0)	8 (100)
	공공서비스 민간위탁기관	1 (1.8)	20 (36.4)	12 (21.8)	13 (23.6)	4 (7.3)	5 (9.1)	55 (100)
	계	3 (1.2)	132 (51.4)	32 (12.5)	62 (24.1)	14 (5.4)	14 (5.4)	257 (100)
중앙 /지방 정부	중앙정부 기관	0 (0.0)	22 (50.0)	5 (11.4)	6 (13.6)	5 (11.4)	6 (13.6)	44 (100)
	지방정부 기관	2 (1.3)	90 (57.0)	15 (9.5)	43 (27.2)	5 (3.1)	3 (1.9)	158 (100)
	계	2 (1.0)	112 (55.4)	20 (9.9)	49 (24.3)	10 (4.9)	9 (4.5)	202 (100)

□ 진로체험 프로그램 연간 이용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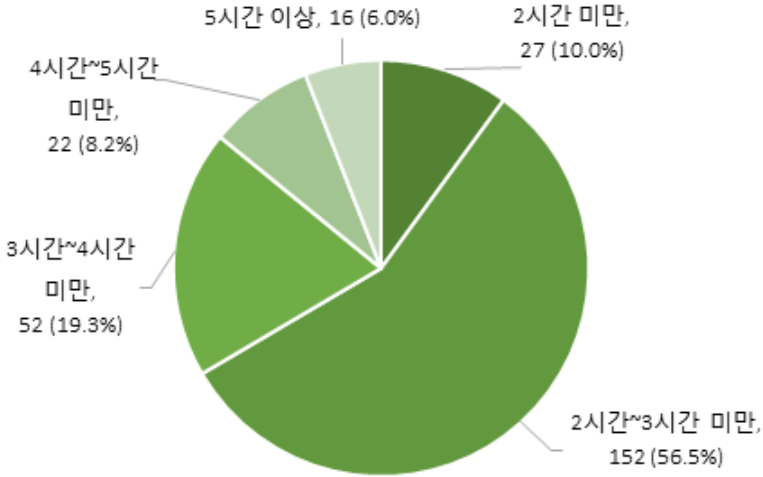
공공기관들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한 연간 이용인원을 조사한 결과, 연간 50명 미만의 학생들이 이용한 곳이 31.3%로 가장 많고, 연간 100명~300명 미만의 학생이 이용한 곳이 23.5%였고, 연간 700명 이상이 이용한 곳과 연간 300명~500명, 연간 50명~100명 미만이 이용한 곳도 각각 11.6%로 나타났다. 특히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2016년도에 신청자가 없어 운영 실적이 없는 기관도 3개소가 있었다.



<그림 3-22>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연간 이용인원

□ 진로체험 프로그램 소요시간

공공기관들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56.5%의 기관들이 2시간~3시간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9.3%의 기관들은 3시간~4시간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10%의 기관들은 2시간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림 3-23>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소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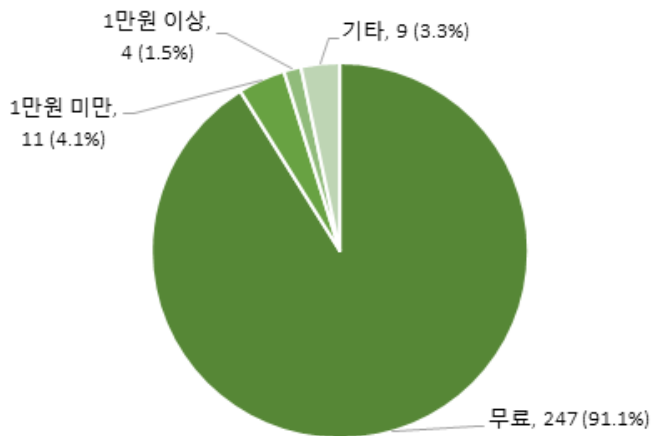
학생들의 집중력과 공공기관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2~3시간 이상을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한다. 실제 캠프형의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고 실습을 겸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4~5시간 이상을 운영하기는 어렵다. 실제 5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주로 캠프형을 운영하는 기관들이었고, 캠프형이 아닌데도 5시간 이상 소요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 혹은 공공서비스 민간위탁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천평생학습관,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교육지원청 등 진로교육에 중점을 두는 기관들이었다.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되는 인천시청소년수련관과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일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진로 프로그램의 경우 1일 이상 혹은 6시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었다.

<표 3-30>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소요시간 변인별 비교

구분		2시간 미만	2시간 ~3시간 미만	3시간 ~4시간 미만	4시간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계
기관 운영 유형	중앙행정기관	6 (19.3)	12 (38.7)	10 (32.3)	3 (9.7)	0 (0.0)	31 (100)
	지방자치단체	9 (6.3)	90 (63.4)	24 (16.9)	8 (5.6)	11 (7.8)	142 (100)
	정부 출자출연기관	1 (6.7)	10 (66.6)	1 (6.7)	3 (20.0)	0 (0.0)	15 (100)
	지방 공기업	6 (23.1)	7 (26.9)	7 (26.9)	4 (15.4)	2 (7.7)	26 (100)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1 (12.5)	4 (50.0)	1 (12.5)	2 (25.0)	0 (0.0)	8 (100)
	공공서비스 민간위탁기관	4 (8.5)	29 (61.7)	9 (19.1)	2 (4.3)	3 (6.4)	47 (100)
	계	27 (10.0)	152 (56.5)	52 (19.3)	22 (8.2)	16 (6.0)	269 (100)

□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가비

공공기관들이 운영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대개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의 기관들(4.1%)이 1만원 미만의 참가비를 받고 있었다.



<그림 3-24>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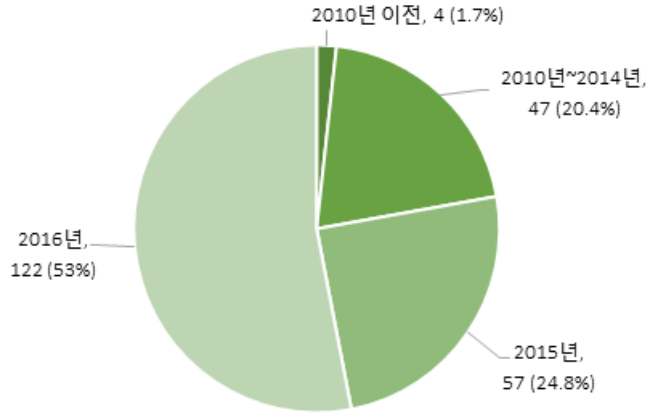
중앙정부 관련 기관들은 모두 무료로 운영하는 반면에,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민간위탁기관의 경우에는 일부에 한하여 유료로 운영하는 기관도 있다. 유료인 프로그램은 대개 숙식을 위한 비용이 필요한 캠프형이거나 실습을 위한 재료가 필요한 경우이다.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된 프로그램의 경우 대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교육·문화시설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재료가 필요한 경우였다.

<표 3-31>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가비 변인별 비교

구분		무료	1만원 미만	1만원 이상	기타	계
기관 운영 유형	중앙행정기관	31 (100.0)	0 (0.0)	0 (0.0)	0 (0.0)	31 (100)
	지방자치단체	135 (97.8)	1 (0.7)	0 (0.0)	2 (1.5)	138 (100)
	정부 출자출연기관	15 (100.0)	0 (0.0)	0 (0.0)	0 (0.0)	15 (100)
	지방 공기업	14 (56.0)	6 (24.0)	3 (12.0)	2 (8.0)	25 (100)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8 (100.0)	0 (0.0)	0 (0.0)	0 (0.0)	8 (100)
	공공서비스 민간위탁기관	44 (81.5)	4 (7.4)	1 (1.8)	5 (9.3)	54 (100)
	계	247 (91.1)	11 (4.1)	4 (1.5)	9 (3.3)	271 (100)

□ 진로체험 프로그램 최초 제공시기

2016년도 운영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최초로 제공한 시기를 알아본 결과, 53%의 기관들이 2016년이라고 응답하였고, 2015년부터 시작한 기관들이 24.9%나 되었다. 2010년~2014년 사이에 시작한 기관들도 20.4%였고, 2010년 이전에 시작한 기관들은 1.7%였다. 이를 보면, 진로교육법의 제정되던 시기와 교육부의 고시가 나온 시기에 많은 공공기관들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5>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최초 제공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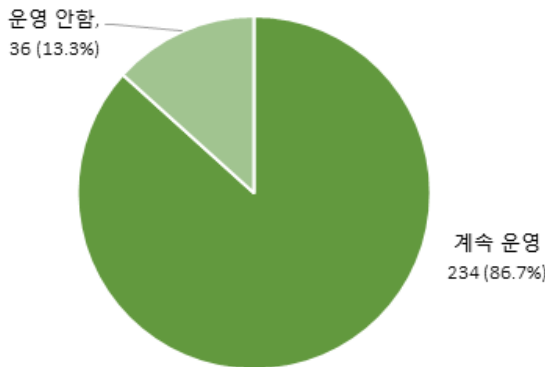
중앙정부 기관들은 대체로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한 반면에, 많은 지방정부 기관들은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즉, 중앙정부 기관들이 지방정부 기관들보다 조금 더 일찍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32>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최초 제공시기 변인별 비교

구분		2010년 이전	2010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기관 운영 유형	중앙행정기관	2 (8.0)	9 (36.0)	6 (24.0)	8 (32.0)	25 (100)
	지방자치단체	1 (0.9)	15 (12.9)	29 (25.0)	71 (61.2)	116 (100)
	정부 출자출연기관	1 (9.1)	5 (45.4)	3 (27.3)	2 (18.2)	11 (100)
	지방 공기업	0 (0.0)	3 (12.0)	6 (24.0)	16 (64.0)	25 (100)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0 (0.0)	3 (42.9)	1 (14.2)	3 (42.9)	7 (100)
	공공서비스 민간위탁기관	0 (0.0)	12 (26.1)	12 (26.1)	22 (47.8)	46 (100)
	계	4 (1.8)	47 (20.4)	57 (24.8)	122 (53)	230 (100)
중앙/지방 정부	중앙정부 기관	3 (8.3)	14 (38.9)	9 (25.0)	10 (27.8)	36 (100)
	지방정부 기관	1 (0.7)	21 (14.2)	36 (24.3)	90 (60.8)	148 (100)
	계	4 (2.2)	35 (19.0)	45 (24.5)	100 (54.3)	184 (100)

□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계속 운영 여부

2016년도에 운영한 프로그램을 2017년도에도 계속 운영할 것인지를 조사한 결과, 계속 운영한다는 응답이 86.7%였고, 2017년에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3.3%였다. 2017년에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한 기관들은 대개 기존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한 경우였다. 이처럼 프로그램을 변경하려는 기관은 지방 정부 기관으로서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나 도서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더 효과 있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한 기관들이다.



<그림 3-26>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2017년 운영여부

<표 3-33>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2017년 운영여부 변인별 비교

구분		계속 운영	운영 안함	계
기관 운영 유형	중앙행정기관	30 (100.0)	0 (0.0)	30 (100)
	지방자치단체	108 (84.4)	20 (15.6)	128 (100)
	정부 출자출연기관	14 (100.0)	0 (0.0)	14 (100)
	지방 공기업	25 (96.2)	1 (3.8)	26 (100)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6 (85.7)	1 (14.3)	7 (100)
	공공서비스 민간위탁기관	51 (78.5)	14 (21.5)	65 (100)
	계	234 (86.7)	36 (13.3)	270 (100)
중앙 / 지방 정부	중앙정부 기관	44 (100.0)	0 (0.0)	44 (100)
	지방정부 기관	139 (86.3)	22 (13.7)	161 (100)
	계	183 (89.3)	22 (10.7)	205 (100)

제3절 소결

인천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623개소 중 472개소의 설문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172개소로 36.4%가 총 30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중앙정부 기관이 지방정부 기관보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비율이 더 높고, 교육·문화 관련 기관이 복지·상당 관련 기관보다 운영 비율이 더 높았다.

진로체험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응답기관의 절반 이상이 진로교육법의 제정이나 관련 교육부의 고시, 진로체험 지원 사이트인 ‘꿈길’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의무적으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거나 진로체험처로서 정보와 운영실적을 등록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약 30% 정도 되었다. 그렇지만,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효과와 필요성, 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에 대하여 진로체험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016년도에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관 172개소 중에서 진로체험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기관은 약 77%, 전담 인력이 있는 기관이 약 68%, ‘꿈길’에 등록한 기관도 약 66% 정도인 반면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기관은 약 44%로 적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기관의 성격에 맞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특별히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기관들 중 일반 공공기관은 주로 100만원 미만을 배정하고 있고, 전담 인력은 대개 1명을 두고 있으며 운영 프로그램 개수도 1개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예산도 500만 원 이상 배정하고 전담 인력도 2명 이상을 두고 프로그램 개수도 5개 이상인 기관들은 진로교육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교육청 소속 도서관과 인천평생학습관 같은 교육청 관련 교육·문화 기관들이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와 연계하는 방법은 주로 학교에서 직접 공공기관에 연락하거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직접 연락의

방법을 활용하고, 다음이 ‘꿈길’ 사이트, 세 번째가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안내나 공문을 활용하였다. 학교에서 ‘꿈길’ 사이트보다는 직접 연락을 더 선호한다는 점에서 ‘꿈길’ 사이트의 개선이나 학교를 위한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정보 안내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들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유로는 미래 인재 육성이 가장 많고, 다음이 사회참여 및 봉사, 기관 이미지 제고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공기관들이 공적 목적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진로체험 제공 기회를 확대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예산 확대, 기관이나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외부 연계기관의 도움, 학생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꼽았고,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의 운영 지원, 기관이나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2016년도에 제공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이외에 신규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관들이 39%(67개소)이고, 이들 중 2017년부터 실행가능한 신규 프로그램이 있는 기관이 53개소였고, 대개 1~2개의 신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기관들은 주로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이거나 교육·문화 관련 기관 그 중에서도 청소년시설인 경우가 많았다. 그 외의 일반 공공기관들은 제공하던 프로그램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2016년도에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들은 300개소(63.6%)였는데, 이들 중에서 향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관이 약 40%였고, 규모가 작은 주민자치센터 같은 지방기관들은 여전히 제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관들이 여태껏 제공하지 못한 이유로는 전담 인력의 부족, 지원 예산의 부족, 공간 및 인프라 부족을 들었고,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향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관들이 제공하고 싶은 프로그램의 유형은 현장직업체험형, 직업실무체험형, 현장견학형 순으로 나타났고, 제공하고 싶은 대상으로는 고등학생과 중학생을 가장 선호하였다. 향후에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사가 없는 기관들이 그 이유로 든 것은 1순위로 전담 인력의 부족, 2순위로 지원 예산의 부족, 3순위로 공간 및 인프라

라 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진로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더불어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예산, 인력, 공간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진로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인력, 인센티브, 사업장의 성격에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016년도에 운영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292개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이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교육·문화 관련기관이 복지·상담 관련 기관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실제 운영한 프로그램의 유형은 강연·대화형이 가장 많고, 다음이 현장직업체험형, 현장견학형 순이었고, 체험영역은 종합적인 진로교육 분야를 제외하면 문화예술, 공무원, 인문사회법률 분야 순으로 많았다. 실제 프로그램 제공 대상은 중학생이 가장 많고 다음이 고등학생이었고, 대부분 단체로 신청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회당 평균 이용인원은 대개 50명 미만, 연간 운영횟수는 대개 30회 미만, 연간 이용인원은 대개 300명 미만이었다. 프로그램의 소요시간은 대개 4시간 미만이었고, 그 이상의 시간을 운영하는 곳은 주로 캠프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였다. 프로그램은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고, 진로교육법이 제정된 2015년을 전후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한 기관들이 많았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2016년도에 운영한 프로그램을 2017년도에도 지속하고자 하였고, 일부 기관들만 신규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였다.

이상의 운영 실태를 종합해 볼 때, 공공기관들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여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와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강연·대화형에 치우쳐 있는 것을 좀 더 다양화하고, 체험영역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체험처를 다양하게 발굴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진로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자체 예산 배정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적당한 인센티브로 진로체험 운영을 유도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기관의 성격에 적절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학교와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천진로교육센터와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 결국 진로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공공기관의 연계 협력으로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
■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Activation of the Career Experience
Program of Public Organization in Incheon

제4장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활성화 방안

제1절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제2절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활성화 방안

제4장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활성화 방안

제1절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확대

인천광역시 소재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40% 미만의 기관들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진로교육법 제정과 교육부의 관련 고시가 발표된 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 진로체험 관련 정책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기관들도 많고, 여건이 되지 않아 제공하지 않는 기관도 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체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우선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늘어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진로체험 관련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인지를 제고해야 한다.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처를 발굴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프로그램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며, 민간기관이나 사기업으로의 확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진로체험 추진체계의 정비와 역할 재정립

지역사회에서 진로체험을 원활히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는 군·구별로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처지일 뿐 아니라 그 운영형태도 기초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이루어지는 곳과 교육청의 위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혼재해 있고, 지원센터의 역할이 제각각이며,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점센터의 역할과도 명확히

구분되고 있지 않다. 예산 또한 편차가 큰 편이다.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설치하기도 하고,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설치하기도 하는 등 혼재해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모두 함께 설치하였으나, 인천의 경우 그러한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경우 다양한 주체로 운영되고 있고, 예산 지원 또한 제각각이다. 이러한 까닭에 조직 형태, 예산 규모, 수행 역할 등에서 편차가 크다. 따라서 체험처의 발굴과 배분 및 관리, 학교와의 매칭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해야 하는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은 미미한 실정이다. 반면에, 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편차는 진로체험을 실제 수행해 보아야 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광역급인 인천진로교육센터가 조례에 따라 개소하였지만,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까지 일부 수행함으로써 여전히 그 역할과 위상이 미약한 편이다. 따라서 인천에서는 진로체험 운영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제대로 된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지원 조례 제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확보와 더불어 지역센터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광역 인천진로교육센터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적절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광역급 센터와 지역 센터가 연계하고, 지역사회와도 연계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연계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진로체험 생태계를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진로체험 정책 추진에 대한 자치단체장과 공공기관장의 의지 중요

지역사회에서 진로체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추진하려는 자치단체장과 기관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가 진로체험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연계 협력이 요구되며, 진로체험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 또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D 금융기관처럼 기관장이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표명할 경우 인

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연계 협력도 원활해지고, 업무 담당자도 적극성을 띄게 된다. 이런 공공기관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간, 공간, 예산, 인력 등 기본 여건 조성에도 적극적일 것이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인재육성에 일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기관 이미지도 제고되고 기관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제공은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제2절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활성화 방안

1. 진로체험 정책 홍보 강화

1) 공공기관에 대한 진로체험 정책 안내

공공기관들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영향력과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기관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 더 많고, 진로교육법을 비롯한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해 보면, 진로체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 2016년 교육부의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을 의무화한 고시 제정 등으로 적어도 공공기관은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 기관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한 법령과 정책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더 많다는 것은 진로체험 정책에 대한 홍보가 여전히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구나 관련 정책은 잘 모르지만 진로체험을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인천시와 교육청이 관련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대상 협조 안내 공문과 관련 법령과 정책 홍보 팸플릿을 제작·발송해야 한다.

2) 인천 관내 진로체험처 종합정보 안내

설문조사 결과 3순위로 많이 활용되는 체험처와 학교의 연계 협력 방법이 교육청의 안내나 공문을 통해서인데 초기에는 교육청의 공문을 통해 체험처를 안내,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교육청 또한 그러한 업무를 매년 반복하기는 번거로울 것이다. 따라서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안내하는 ‘내꿈터’ 외에 인천 소재의 기관들이 운영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정보를 인천진로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청이나 교육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도 연동되고,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서도 연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되도록 인천 소재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도 연동될 수 있도록 해 주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리고 신규 개설되는 프로그램과 사라지는 프로그램들을 수시로 반영하여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우수 프로그램 홍보 및 사례 공유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기관들이 프로그램을 보다 손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먼저 우수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유사 기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사례를 먼저 알 수 있다면, 엄두를 내지 못했던 기관들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진로체험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한 사례들을 널리 홍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시청, 교육청, 인천진로교육센터 등의 홈페이지에 공유해야 한다. 더불어, 기관지와 지역 언론, 공문, 진로교육협의회 및 지역 진로체험 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2. 진로체험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1) 진로체험 지원체계 정비 및 역할 강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진로체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와 광역 진로교육센터 같은 진로체험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먼저,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정비하여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천의 경우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아직 군·구별로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그 조직과 운영형태, 예산규모 등에서 편차가 심하고, 그 역할도 모호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용진군을 제외한 기초지자체별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모두 설치되고 각 지역의 사업과 역할 규정이 명확해져야 사업의 중복 및 사각지대의 발생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진로체험 운영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제대로 된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둘째로, 광역 진로교육센터의 역할 강화 및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와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교육청이 운영하는 광역급 인천진로교육센터는 뒤늦게 개소하였다. 하지만, 아직은 규모나 역할 면에서 광역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광역급 진로교육센터도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가 각 군·구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광역 진로교육센터에서 그 일부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허브 기관으로서의 제도적 위상이 불분명함은 물론, 다중적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업무의 과부하 또는 업무의 실효성 저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는 법적 규정이 미비한 탓도 있지만, 충분한 준비와 협의가 잘 되지 못한 탓도 있다. 따라서 인천진로교육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광역급 인천진로교육센터와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 분담과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진로체험 또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로교육협의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광역급인 인천진로교육센터가 개소함으로써 비로소 진로교육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진로교육협의회는 이제 활동을 시작하였으므로, 향후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연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교육지원청 단위별 진로체험 협의체 구성 및 홍보

공공기관들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동참하고 효율적,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 간의 연계 협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단위별로 관련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공공기관들, 학교와 함께 참여하는 진로체험 관련 협의체가 필요하다.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로체험 정책에 대하여 안내하고 홍보하여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체험처 발굴에도 도움이 되고 효과적인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고, 진로체험 제공을 위한 자체 예산 편성과 자체 인력 활용을 독려해야 한다.

3)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 형태, 예산규모 등이 제각각인 데에는 예산지원과 인력배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보다 안정적으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별로 설치되어 운영되므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서울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인천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진로교육이나 진로체험에 관하여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가 일부 있고, 남구의 경우에는 지원 조례를 이미 제정하였다.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진로체험 운영 지원

1) 다양한 체험처 발굴 및 확대

지속적으로 체험처를 발굴하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으로도 진로체험 운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교육청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인천 관내에는 6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공공기관이 있다. 이 중에서 아직 진로체험처로서 활용되지 못하는 기관이 훨씬 많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처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중앙기관, 인천시 산하 기관부터 먼저 진로체험처로 발굴해야 한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하고, 지역사회의 인재 양성에 적극 기여하기 위하여 진로체험처가 되도록 권장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기관을 대상으로도 진로체험처를 발굴하여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관으로도 진로체험이 확산되어 더욱 다양한 진로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기초지자체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문화축제와 야시장 등을 연계하여 생생한 직업체험 및 창업에 대한 체험을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현재 인천시는 길병원, 포스코, 금융기관 등 관내 민간기관을 대상으로도 체험처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에 앞서 공공기관이 선도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드높아지고 미래사회 직업과 관련이 깊어지는 만큼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종, 직업 등에 대한 진로개발과 직업체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청이 주도적으로 관내 4차 산업 관련 진로체험처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교육청과 인천진로교육센터는 미래 산업 관련 진로개발 및 진로교육,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공공기관의 명확한 업무 지침으로 명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모두 명확한 업무 지침이 있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E 공단의 경우 오래 전부터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는 있지만, 여

전히 마땅히 해야 할 업무로 여길 수 있는 상부기관의 지침이 없다 보니, 상황에 맞춰서 운영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따라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공공기관들에게 명확한 업무 지침으로 내려온다면, 프로그램 운영을 마땅히 해야 하는 업무로 여길 것이고, 이에 기관 전체가 협조적이 될 것이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식으로 여겨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아니라, 또한 담당자의 열의에 기대는 진로체험 운영이 아니라, 공공기관들은 마땅히 해야 하는 업무로 여길 수 있도록 중앙기관에게는 중앙에서, 인천시 산하 기관들에게는 인천광역시에서 업무 지침으로 명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 기관보다 지방정부 기관들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인천시의 업무 지침을 통해 인천시 및 기초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들이 진로체험 운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복지·상담 관련 기관은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며 예산, 인력, 공간 등의 측면에서 여건이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 관내 교육·문화 관련 기관보다 복지·상담 관련 기관의 진로체험 운영 비율이 낮은 것을 개선하려면 점진적으로 여건이 가능한 기관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으로 명시하고 또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복지·상담 관련 기관의 참여도 점차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3)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설문 결과 많은 공공기관들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담당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업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먼저, 사회적 책무로서 공공기관들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진로체험 우수 기관'으로 선정하여 인천시에서 기관지나 지역 언론을 통해 널리 홍보해 주어야 한다. 지역 언론을 통해 '교육기부 우수기관' 혹은 '우수 진로체험기관'으로 홍보해 주는 것은 그 기관의 브랜드 가치

를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로, 더욱 많은 공공기관들이 진로체험처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는 기관 평가에 진로체험 제공 실적을 반영해야 한다. 교육부의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에는 교육부장관이 전년도 진로체험 실적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진로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들의 평가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진로체험 제공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도 자치단체 평가에만 반영되고 있을 뿐, 아직은 공공기관들의 평가에 진로체험 제공 실적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평가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하나의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관평가에 반영한다면 더 많은 공공기관들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신경 쓰게 될 것이다.

4) 일정 비율 예산 배정 독려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듯이, 공공기관들이 대개 적은 예산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없이 운영하는 기관도 있는 처지이다. 하지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요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기관이나 진로체험 프로그램 홍보물,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료, 다과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예산은 필요하다. 따라서 시청은 일정 비율의 예산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배정할 수 있도록 산하 공공기관에게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할 것이다.

4. 진로체험 질 관리

1)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컨설팅

아직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기관들에게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공공기관들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적절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

기관 어려운 일이다. 프로그램 개발 지원은 C 예술기관이 지적하듯이, “기획력이 없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원이다. 설문 결과에서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나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업장의 성격에 적절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도 적절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보급해 준다면, 프로그램 개발을 어려워하는 공공기관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인천진로교육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시로 제공해 주거나,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기관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제안했듯이,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4차 산업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도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효과적인 운영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성격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지속할 수 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를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까지 해 주어야 한다. 공공기관과 인천 진로교육센터와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의 성격에 적절한 효과적인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인천진로교육센터가 컨설팅의 역할까지 충실히 수행해 준다면, 인천의 진로체험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2) 프로그램의 질 모니터링과 피드백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필요하면서도 유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질 관리가 필요한데, 교육부가 시행하는 ‘교육기부 인증제’ 이외에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한 개선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의욕적인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질적 개선을 도모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은 질 관리가 쉽지 않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이 사전에 실시하는 체험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통한 기본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학생 수요자 조사, 진로교사 협의회를 통한 교사 의견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피드백과 컨설팅을 해 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운영이 개선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진로교육 센터가 주도적으로 진로체험 관련 협의체를 활용하여 시청,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야 할 것이다.

3)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형 다양화

설문조사 결과, 공공기관들은 체험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강연·대화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난 것을 고려하면,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유형이 보다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직업기관에서 진로직업체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현장 중심의 ‘체험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진로체험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체험’이 가져다주는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서이다. 강연형은 직업현장이 아닌 진로교육기관이나 학교에서도 가능한 유형이므로, 되도록 직업기관인 공공기관에서는 체험형 중심으로 진로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체험형에 더하여 강연형이나 대화형이 병행될 수는 있지만, ‘체험’이 빠진 강연형이나 대화형은 곤란하다. 따라서 직접적인 직업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제공가능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험처에 적절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주는 지원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Activation of the Career Experience Program of Public Organization in Incheon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종합

제2절 제언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종합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글로벌 시대에 학교교육이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없다’(김희대, 2014: 1)는 자명한 명제 앞에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은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중요해졌다. 진로교육법의 제정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진로교육이 학교 안의 텍스트로서 이루어지는 한계를 비판하면서 체험적이고 맥락적인 진로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그리하여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진로체험이 중요한 진로교육의 한 유형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진로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들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진로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1. 지역사회 진로체험 제공의 중요성과 필요성

최근 초창기의 전통적인 텍스트 중심의 진로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맥락 중심의 체험적 진로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그것이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과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 함양에 더 효과적이라고 드러났기 때문이다(장원섭, 2007). 이에 따라 진로체험을 수행해 볼 수 있는 지역사회의 체험터가 중요해졌고,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체험적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직업을 탐색, 체험할 수 있는 진로체험 특히 진로직업체험은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실시, 진로집중학년/학기제 도입, 진로집중과정 설치 등으로 더욱 주목받는 영역이 되었다. 이처럼 진로직업 체험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진로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제공 실

태를 조사해 본 결과,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체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과 달리, 진로체험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기관도 60% 이상으로 많은 편이다. 진로교육법 제정에 이어 교육부의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을 규정하는 고시가 발효되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편이다.

지역사회에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것은 진로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연순 외(2012: 218)가 주장하듯, 진로직업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업인들이 하는 일을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 관계를 맺고, 실제 업무들을 경험해 보면서 직업세계에 대한 실제적 감각을 높인다면, 청소년들의 진로설계는 훨씬 더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¹³⁾ 진로교육은 이론과 실습이 함께 겸비될 때 학습자의 것이 될 수 있고 사전에 진로를 체험해 본 학생이 학업이나 취업에서 실패가 적다(김희대, 2014: 41). 다양한 진로직업체험을 통해 내리게 되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은 진로만족도를 제고할 것이고 이는 나아가 직업세계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져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중요한 기본 조건이 된다. 따라서 다양한 체험처를 제공해 주는 지역사회는 가장 효과적인 진로교육을 위한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진로체험 제공은 진로체험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학교가 가진 자원만으로는 다양한 체험터를 제공하기 어렵다. 그러나 학교 밖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직업기관이 있으며,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와 그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태도, 기능 등을 추상적 이론 형태가 아니라 구체적 경험 형태로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결국 지역의 여러 자원들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 지역의 아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생산적 시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이 진로체험의 장으로 적극 개방해주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김희대, 2014: 40). 공공기관부터 먼저 진로체험처로서 지역의 진로체험 친화적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이러한 문

13) 체험의 중요성과 교육적 효과는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다. 최근 박물관, 동식물원 등에서도 직접적인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음은 우연이 아니다.

화가 민간기관으로도 확산되어 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체험을 매개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 협력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교육공동체가 될 수 있다. 교육공동체란 교육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는 구성원들의 공동체를 말한다. 성은모·정효정(2013: 57)이 주장하듯, 지역의 인재양성에 대해 지역사회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그럴 때 진로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감 또한 생겨날 수 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지역사회는 인재를 낳고 키우고 살게 하는 근원적 바탕이 되어야 한다. 즉, 지역사회는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성은모·정효정, 2013: 57). 지역사회는 학교와 연계 협력함으로써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함께 헌신하는 교육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진로체험은 이러한 교육공동체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2.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정책 인식 제고와 제공 확대를 위한 노력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제공을 확대하고 진로체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진로체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고, 공공기관장의 의지도 또한 필요하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담당 인력을 두고 있는 기관도 꽤 있으나, 공식적인 업무 지침으로 명시되지 않아 기관장의 관심이나 담당자의 의지로 진로체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체험처 발굴 노력과 더불어 자체 예산과 인력을 활용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유도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들에게는 기관의 성격에 적절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더 나은 프로그램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해 주는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이 요구된다. ‘꿈길’ 사이트의 불편함으로 학교와의 연계는 직접 연락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 학교와의 연계도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로체험처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들은 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과 사회참여 및 봉사, 기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공적 목적에 공

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진로체험 제공 기관에 대하여 우수 교육기부 기관으로 홍보해 주거나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시청의 경우 공공기관의 진로체험처 확보와 확대를 위한 체험처 발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진로체험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정기적으로 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진로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우수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른 기관들에게도 널리 홍보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들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업무 지침으로 명시해 주고, 운영 기관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진로체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에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해 주어야 한다.

교육청의 경우에는 진로체험 추진체계를 재정비하여 그 역할을 강화하고, 광역 진로교육센터와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역할을 분담하며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진로체험협의체를 활성화 하여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운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진로체험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진로체험처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컨설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급인 인천진로교육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인천진로교육센터는 진로교육의 허브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프로그램의 질 관리에 힘써야 한다.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과 협력 또한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공공기관들은 학생들의 진로체험에 관심을 가지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담당인력에게 업무로 배정하고, 지역 진로체험협의체에 참여하여 홍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현재 강연·대화형이 많이 실행되고 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업현장을 잘 알 수 있는 ‘체험

형'으로의 운영을 확대하여 진로체험의 유형도 다양화해 줄 필요가 있다.

결국 지역사회에서 진로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청, 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의 연계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의 운영 현황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다음이 정책홍보 지원, 이어서 진로체험 운영 지원과 질 관리이다. 하지만, 추진 주체가 상이하므로 동시에 추진된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은 진로체험 지원 체계의 주요 역할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표 5-1> 진로체험 활성화 방안에 따른 관련 기관의 주요 역할

구분	교육부 규정에 따른 주요 역할	추진 주체별 활성화 방안	
		광역	기초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기업 등의 체험처 정보 수집 및 제공 - 진로체험지원센터 예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에 대한 진로체험 정책 안내 - 우수 프로그램 홍보 및 사례 공유 - 다양한 체험처 발굴 및 확대 - 공공기관의 업무 지침 명시 -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일정 비율 예산 배정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교육 (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진로체험 기획·총괄 - 체험처 정보 제공 및 예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에 대한 진로체험 정책 안내 - 우수 프로그램 홍보 및 사례 공유 - 진로체험 지원체계 정비 및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청 단위별 진로체험 협의체 구성 및 홍보
진로체험 지원센터 (광역: 인천진로 교육센터 기초: 진로체험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처 발굴·관리 - 체험프로그램 컨설팅 - 체험처-학교 매칭 - 센터 자체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진로체험처 종합정보 안내 시스템 구축 -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컨설팅 - 프로그램의 질 모니터링과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형 다양화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처 정보 제공 - 체험처 발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형 다양화 - 예산 및 전담 인력 배정 노력 	

제2절 제언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교육 유형 중에서 진로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역사회의 체험처가 중요해졌다. 진로교육법의 제정과 교육부의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고시는 이러한 지역사회 진로체험 제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학생들의 진로체험이 원활히 진행되어 효과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공공기관들이 우선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험처가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들은 그러한 사회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공공기관들조차도 진로체험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60% 이상의 기관들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진로체험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홍보 강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사회의 진로체험 추진체계 마련, 공공기관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과 개발 지원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향후 지역사회에서 진로체험의 효과를 제고하고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진로체험 기회가 부족한 대상에 대하여 차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진로체험의 경우 인천 관내에서도 군과 자치구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군·구별로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수에 격차가 있고, 접근성에 따라 진로체험의 양과 질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5-2> 소재지별 공공기관 현황

구분	중구 (영종포함)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계
공공 기관 수	63	33	87	60	99	82	51	88	43	17	623
비율(%)	10	5	14	10	16	13	8	14	7	3	100

자치구와 달리, 군의 경우 진로체험에 적절한 공공기관 수도 적고 다양한 공공기관을 접하기도 어렵다면 진로체험의 기회가 적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진로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대상을 발굴하고 이들을 더 많이 지원하는 차등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부에 꿈길 사이트의 개선을 계속 요구해야 한다. 공공기관들이 학교에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계하는 방법은 주로 학교에서의 직접 연락이나 기관 홈페이지의 신청을 통해서이다. 교육부가 공식적인 연계 통로로 개설한 꿈길 사이트의 활용은 2순위이다. 꿈길 사이트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이용하는 자가 활용하는 데 불편하기 때문이다. 학교의 입장에서 한번 연결하면 충분히 의논하고 일정을 조율하여 확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꿈길을 활용하면 우선순위가 어려워 학교에서도 활용하기를 꺼린다고 한다. 또한, 체험처와 학교와의 체험 매칭 이후 한쪽 기관의 사정으로 진행불가가 되었을 경우 서로에 대한 이해 갈등 및 꿈길 관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다. 그런데 매칭을 담당할 진로체험지원센터가 갈등 조정을 담당하게 되는데,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양쪽 입장을 번갈아 듣고 조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체험처와 학교, 지역 센터 모두 꿈길 사이트의 활용을 선호하지 않는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꿈길에 등록하지 않은 공공기관들이 30%가 넘는다는 점은 꿈길 사이트를 선호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중앙정부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과 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기관들 일부가 등록하지 않은 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 산하 기관들조차도 등록하지 않은 곳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꿈길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일선 학교에서 더 불편해 함을 잘 알고 있어 상부기관에서도 활용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꿈길 사이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험처와 학교, 진로체험지원센터 담당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기관의 진로체험 운영 실태 조사를 후속 연구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관은 그 규모나 성격에 따라 진로체험 운영에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기관의 많은 참여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민간기관의 진로체험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지역사

회의 진로체험 지형도를 파악하고,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요자 관점의 연구도 후속 연구로 수행하여 진로체험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예컨대,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참여 실태를 조사하여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문헌자료

- 고재성 외(2008). 진로교육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 교과부·노동부·복지부 공동(2010). 진로교육 종합계획(안).
- 교육부(2017. 2). '17년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계획(안).
- 교육부(2016).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대한상공회의소(2017), 2017 진로체험지원센터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2006. 10. 19일자).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07~'11) 계획」 수립 추진으로 전 국민에 대한 평생진로개발 지원 체제 구축.
- 권일남(2015). 자유학기제 청소년 진로체험이 진로탐색과 진로직업역량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3(1): 17-26.
- 김기현·맹영임(2011).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 협력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유홍준·오병돈(2014). 진로체험의 효과: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직업교육연구, 33: 19-36.
- 김은석 외(2013). 직업체험 시설을 활용한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김태선(2016). 진로발달이론에서 본 진로체험활동: 슈퍼이론 및 구성주의 진로이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세미나자료집, 2016. 7. 15. L7호텔 명동 2층 미팅룸, 17-33.
- 김희대(2014). 미국 중등학교의 진로교육과 지역사회연계 진로 체험 활용 사례. 2014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2. 한국교육개발원.
- 뉴스와이어(2015.7.1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법 제정, 진로탐색 기회 확대 마련"
- 맹영임·임경희(2008).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21-0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가열(2008). 초·중기 청소년 직업체험학습이 진로계획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5: 115-130.
- 박현진(2015).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진로체험활동이 학생들의 진로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특별시교육청(2017). 2017년 진로교육 활성화 계획.
- 성은모·정효정(2013). 자유학기제 청소년 진로 체험활동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진로교육연구, 26(4): 49-63.
-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 오은연(2014). 직업체험을 활용한 진로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란 외(2015). 창의적 진로역량 개발을 위한 실행중심 체험 ROAD 발굴 및 적용 방안 수립. 성남형교육지원단·경기도교육연구원.
- 유한구 외(2015). 자유학기·진로체험 인프라 맵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동혁(2016). 진로선택이론에서 본 진로체험활동: 홀랜드 이론 및 진로정보처리이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세미나자료집. 2016. 7. 15. L7 호텔 명동 2층 미팅룸, 1-15.
- 이상준(2011). 고등학생의 진로교육 참여결정요인과 그 효과성에 관한 연구: 대학 전공학과 선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17(2): 385-408.
- 이혜숙·이영주(2016). 서울지역 자유학기제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진로탐색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 인천광역시교육청(2017. 10). 2017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현황.
-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2016). 상담내용별 상담건수 내부자료.
- 임언(2005). 다층모형(HLM)에 기초한 학교 진로교육 효과 분석, 제1차 교육고용패널(KEEP) 학술대회 자료집, 639-659.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지연 외(2006).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청소년직업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장원섭(2007). 맥락 중심의 평생 진로교육 제안. 진로교육연구, 20(2): 1-13.
- 장현진(2015). 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 The HRD Review 7월호, 28-46.
- 장현진 외(2016). 진로교육 현황조사(2016). 교육부·전라북도교육청·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연순 외(2012). 지역사회 기반 중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직업교육연구, 31(1): 217-240.
- 정윤경·김나라·서유정(2011). 직업체험 중심 진로교육 지원체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철영 외(2012). 직업체험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발달, 학습동기, 창의성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5: 1-17.
- 정철영 외(2015). 우리나라 진로교육 현황 및 발전 방향 연구. 진로교육연구, 28(3): 155-171.
- 정해숙 외(2015). 진로교육 및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 조성심·주석진(2010). 체험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진로교육연구*, 23: 47-64.
- Baily, L. J. & Stadt, R.(1973). *Career education: New approaches to human development*, Bloomington: Mcnight.
- Hoyt, K. B.(1974). An introduction to career education. *U. S. Office of Education Policy Paper*. Washington, DC : The office.
- Hughes, K. L., Bailey, T. R. & Mechur, M.(2001). *School-to-work: Making a difference in education*. NY: New York Institute on Education and the Economy.
- Marland, S. P.(1974). *Career education*. New York : McGraw-Hill.
- Parsons, F.(1909). *Choosing a vo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 Stone, J. R. & Aliaga, O. A.(2005).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and school-to-work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Participation and outcomes.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Research*, 30: 125-144.
- Zunker, V. G.(2002).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6th ed.)*. Pacific Grove, CA: Brooks & Cole Publishing Company.

■ 홈페이지

꿈길 사이트 <http://www.ggoomgil.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Activation of the Career Experience
Program of Public Organization in Incheon

부록

부록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현황 및 요구 조사

부록

ID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현황 및 요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광역시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인천시 출연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공공기관들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현황 및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진로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 처리되어 연구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응답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33조 및 34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성실히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책임 : 인천발전연구원 배은주 연구위원

문의처 : 인천발전연구원 허효선 연구원 (032-260-2781, greenyj@idi.re.kr)

기관 기본정보

기관명	
기관 유형	<input type="checkbox"/> ① 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를행정기관)
	<input type="checkbox"/> ②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시·도청, 시·군·구청,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input type="checkbox"/> ③ 정부 공기업(정부 공사, 공단)
	<input type="checkbox"/> ④ 정부 출자출연기관
	<input type="checkbox"/> ⑤ 지방공기업(인천시 공사, 공단)
	<input type="checkbox"/> ⑥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input type="checkbox"/> ⑦ 공공서비스 민간위탁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진로체험 설문 진로체험에 대한 인식

※ 지금부터는 **2016년도를 기준으로** 설문에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1. 다음은 진로체험 운영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주세요.

문 항	네	아니오
1-1. 2015년에 「진로교육법」이 제정된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1-2. 「진로교육법」 제5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1-3.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이 교육부에 의해 고시된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1-4. 교육부 진로체험지원 사이트 '꿈길'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1-5. 교육부 진로체험지원 사이트 '꿈길'에 진로체험처로서 정보를 등록하고 진로체험 운영 실적을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꿈길이란? (<http://www.ggoomgil.go.kr>)
 체험처와 체험지원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로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 체험처와 학생과의 매칭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진로탐색·설계 지원을 위해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 전산망 사이트입니다.

2. 다음은 진로체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직업이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①	—②	—③	—④
2-2.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교육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진행하는 진로체험 활동은 중요하므로 꼭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 문항 '3' 번으로	◇ 다음 문항 '2-3' 번으로

「문항 2-2의 ③ 조금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경우

2-3.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교육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진행하는 진로체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접 써 주세요.

진로체험 설문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귀 기관은 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__① 운영하고 있다 ◇ 다음 문항 '4' 번으로
__② 운영하고 있지 않다 ◇ 문항 '13' 번으로 (p.6)

4. 귀 기관의 2016년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문항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주세요.

문 항	네	아니오
4-1. 진로체험 연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__①	__②
4-2. 진로체험을 위한 배정 예산이 있다	__① (천원)	__②
4-3. 진로체험을 담당하는 상시인력(정규, 비정규)이 있다	__① (명)	__②
4-4. 기관의 성격에 맞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__①	__②
4-5. 진로체험 관련 온라인정보시스템(꿈길)에 등록하였다	__①	__②

5. 귀 기관에서는 2016년 기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몇 개 운영하였습니까? ()개

 운영하신 프로그램 개수만큼 p.9의 <현황조사표>에 기록해 주세요.

6. 이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학교와의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가장 많이 이용한 방법을 순위별로 2개만 골라 번호를 써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꿈길 사이트를 통해서
- ②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통해서
- ③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안내 또는 공문을 통해서
- ④ 인천광역시, 군·구청의 안내 또는 공문을 통해서
- ⑤ 학교에서 직접 연락을 하거나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서
- ⑥ 기타()

7. 귀 기관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① 기관 이미지 제고
- __② 사회 참여 및 사회 봉사활동
- __③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
- __④ 법적 강제 때문
- __⑤ 기관장의 열의
- __⑥ 기타()

8. 귀 기관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들의 개선 필요 정도를 1점에서 5점까지 해당하는 것에 표기해 주세요.

문 항	개선 필요성				
	가장 적음				가장 큼
	1점	2점	3점	4점	5점
8-1. 기관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업그레이드	_①	_②	_③	_④	_⑤
8-2.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_①	_②	_③	_④	_⑤
8-3. 외부 강사 확보 및 보조 인력 지원	_①	_②	_③	_④	_⑤
8-4. 운영 관련 예산 확대	_①	_②	_③	_④	_⑤
8-5. 학교 등 이해관계자와의 호의적 관계 형성 및 유지	_①	_②	_③	_④	_⑤
8-6. 기관 실무자의 진로체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전문성 확보	_①	_②	_③	_④	_⑤
8-7. 학생들의 안전수칙과 안전대책 마련	_①	_②	_③	_④	_⑤
8-8.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혹은 기관의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_①	_②	_③	_④	_⑤
8-9. 외부 연계기관의 도움	_①	_②	_③	_④	_⑤

9. 귀 기관에서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어떠한 지원이 가장 필요합니까? 우선순위별로 2개만 골라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프로그램 개발 지원
- ② 프로그램 운영 지원(예산, 인력)
- ③ 운영 기관,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 ④ 기관 홍보
- ⑤ 학교와의 연계지원(공길 활용법)
- ⑥ 기타()

10. 귀 기관은 2016년 운영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외에 새로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까?

__① 네 ◊ 다음 문항 '11' 번으로 __② 아니오 ◊ **설문종료**

11. 귀 기관에는 2017년부터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__① 네 ◊ 다음 문항 '12' 번으로 __② 아니오 ◊ **설문종료**

12. 귀 기관은 2017년에 몇 개의 새로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까?

()개

설문종료

「문항 3의 ② 운영하고 있지 않다」를 선택한 경우

13. 귀 기관은 향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까?

__① 네 ◊ 다음 문항 '14' 번으로 __② 아니오 ◊ 문항 '18' 번으로 (p.8)

14.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사는 있으나, 지금까지 제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위별로 3개만 골라 번호를 써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기관장의 관심 부족
- ② 체험에 대한 요구 없음
- ③ 전담 인력의 부족
- ④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 ⑤ 프로그램 지원 예산의 부족
- ⑥ 제공방법 등에 대한 정보 부족
- ⑦ 운영 공간 및 인프라 부족
- ⑧ 사업장 성격이 체험처 제공에 부적절
- ⑨ 담당자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 ⑩ 진로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함
- ⑪ 진로체험 제공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⑫ 기타()

15. 귀 기관에서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어떠한 지원이 가장 필요합니까? 우선순위로 2개만 골라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프로그램 개발 지원 ② 프로그램 운영 지원(예산, 인력)
③ 운영 기관,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④ 기관 홍보
⑤ 학교와의 연계지원(공급 활용법) ⑥ 기타()

16. 향후 귀 기관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표의 진로체험 유형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골라주세요. (중복응답 가능)

- ___① 현장직업체험형 ___② 직업실무체험형 ___③ 현장견학형
___④ 학과체험형 ___⑤ 진로캠프형 ___⑥ 강연형·대화형
___⑦ 정확한 계획 없음

<진로체험 유형별 활동내용>

유형	활동 내용
현장직업체험형	- 학생들이 관공서, 회사, 병원, 가게, 시장과 같은 현장 직업 일터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 (멘토 1인당 10명 내외 학생 지도 권장)
직업실무체험형	-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모의 일터에서 현장직업인과 인터뷰 및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현장직업인 멘토 1인당 15명 내외 학생 지도 권장)
현장견학형	- 일터(직업장), 직업관련 홍보관,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생산과정, 산업분야의 흐름과 전망 등을 개괄적으로 견학하는 활동
학과체험형	- 특성화고, 대학교(원)을 방문하여 실습, 견학, 강의 등을 통해 특정 학과와 관련된 직업 분야의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하는 활동
진로캠프형	- 특정 장소에서 진로심리검사·직업체험·상담·멘토랑·특강 등 종합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활동(1일 6시간 이상 운영)
강연형·대화형	- 기업 CEO,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직업인들의 강연, 진로특강을 통해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활동(대화형은 40명 내외 학생 기준)

17. 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싶습니까?

(중복응답가능)

- ___① 초등학생 ___② 중학생 ___③ 고등학생
___④ 대학생 ___⑤ 정확한 계획 없음 ___⑥ 기타()

설문종료

「문항 13의 ②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18.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사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위별로 3개만 골라 번호를 써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기관장의 관심 부족
- ② 체험에 대한 요구 없음
- ③ 전담 인력의 부족
- ④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 ⑤ 프로그램 지원 예산의 부족
- ⑥ 제공방법 등에 대한 정보 부족
- ⑦ 운영 공간 및 인프라 부족
- ⑧ 사업장 성격이 체험처 제공에 부적절
- ⑨ 담당자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 ⑩ 진로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함
- ⑪ 진로체험 제공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⑫ 기타()

설문종료

<진로체험 프로그램 현황조사표>

(기관명: _____)

☞ 귀 기관에서 2016년도에 운영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모두 작성하여 주십시오.

<진로체험 유형별 활동내용>

유형	활동내용	<진로체험 체험영역>
현장직업체험형	학생들이 관공서, 회사, 병원, 가게, 시장과 같은 현장 직업 일터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	경제산업
직업심무체험형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모의 일터에서 현장직업인과 인터뷰 및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	환경에너지
현장견학형	일터(직업장), 직업관련 홍보관,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생산공정, 산업분야의 흐름과 진양 등을 개괄적으로 견학하는 활동	교통안전
학교체험형	특성학교, 대학교(원)을 방문하여 실습, 견학, 강의 등을 통해 특정 학과와 관련된 직업 분야의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하는 활동	디자인
진로캠프형	특정 장소에서 진로심리검사·직업체험·상담·멘토링·특강 등 종합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활동	스포츠
강연형대화형	기업 CEO,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직업인들의 강연, 진로특강을 통해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활동	미디어
		기타

프로그램명	유형	체험영역	대상	참여방법	희망 이용인원	연간 운영회수	연간 이용인원	소요시간	참가비	최초 제공시기	2017년 운영여부
예시) 행복진로콘서트	강연·대화	경제산업	중학교 1학년	개인 또는 단체	평균 120명	4회	500명	2시간	()원 없으면 '0원'으로	2015	운영 ○ 비운영 x
(1)											
(2)											
(3)											
(4)											
(5)											

IDI연구보고서 2017-03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발행인 이종열
발행일 2017년 11월 30일
발행처 인천발전연구원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TEL 032) 260-2600
FAX 032) 260-2629
<http://www.idi.re.kr>

인쇄소 청송출판인쇄사 (032-883-4437)

© 인천발전연구원 2017

ISBN 978-89-5678-679-7 9337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인천발전연구원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